

2025년 가을호 vol.180

2025 총동창회 대바자회

'가야금산조 및 병창' 국가무형문화재 이영희 동창

이화의료원 의료사회복지사 김현희 동창

이화 동창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보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 Limited Edition ♥

총동창회 New 기념품



접이식 무드등

배꽃 디자인 램프(터치식 온오프, 무선 지원)
사이즈 : 접으면 12.1*1.8cm / 펼친 높이 21cm

70,000원



이화 장우산

다크그린 색상의 꼭자형 손잡이 우산
펼친 사이즈 : 높이 88cm * 폭 102cm

13,000원



패드 리더 케이스

고급스러운 느낌의 진초록 가죽 패드 케이스
사이즈 : 가로 33cm * 세로 24cm

25,000원



레더 트레이(정사각)

사이즈 : 가로/세로 14cm * 높이 5cm
색상 : 다크그린, 카멜, 머스타드

18,000원



레더 필통

사이즈 : 가로 20cm * 세로 9cm * 폭 1.5cm
색상 : 다크그린, 카멜, 머스타드

18,000원



레더 트레이(직사각)

사이즈 : 가로 24cm * 세로 14cm * 높이 5cm
색상 : 다크그린, 카멜, 머스타드

18,000원



배꽃 장패드

컴퓨터 테이블 매트로 제격인 다크 그린 장패드
사이즈 : 가로 80cm * 세로 30cm

25,000원



이화 멀티클립

내장된 자석으로 탈부착 가능 / 메모 고정
사이즈 : 가로 4.8cm * 세로 7cm

4,000원



이화 장바구니(大)

진초록 무늬의 튼튼한 고급 프리미엄 에코백
사이즈 : 가로 50cm * 높이 40cm * 손잡이 24cm

8,000원

■ 판매장소 동창회관(이화·삼성교육문화관) 8층 총동창회 사무국(02-3277-3386, 3387)

■ 판매시간 월~금 오전 9시~오후 5시(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 품목당 100개 이상 구입 시 10% 할인(수첩 달력 제외)
- 택배 주문(02-3277-3386, 3387 또는 ewhaalum@ewha.ac.kr) 가능[택배 요금 본인 부담]



표지 사진

황규호(모교 교육학과 명예교수)
교육관 빛나무 단풍(2016년)

편집위원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장)
한은주(특교 79, 총동창회 부회장)
곽은이(한음 85, 총동창회 부회장)
김경령(수화 84, 총동창회 총무)
최지영(사화 89, 총동창회 홍보부장)
이영희(사화 88, 편집위원)
이미란(행정 89, 편집위원)
정진숙(행정 89, 편집위원)
최정은(커미부 89, 편집위원)

발행 2025년 10월 10일 발행

발행인 이명경

발행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52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층)

전화 02-3277-3386~7

E-mail ewhaalum@ewha.ac.kr

홈페이지 <http://www.ewhaalum.or.kr>

편집 문화정원

인쇄 제이오

비매품

이화동창에서 사용한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2025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 02 이화 동창과 드리는 한마음 기도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것이니시라
- 03 2025 총동창회 대바자회
이화의 이름으로 펼친 풍성한 가을 바자회
- 10 만나고 싶었습니다
'가야금산조 및 병창' 국가무형문화재 이영희 동창
- 14 이화인 모임 탐방 / 약학대학 동창 합창단
끈끈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반세기를 이어온
화합의 하모니
- 18 자랑스러운 이화의 얼굴
이화의료원 의료사회복지사 김현희 동창
- 22 선교지편지
“예수 누구시(예수님과 함께하시길!)”
- 24 총동창회 소식
'대바자회'와 '이화인의 밤' 행사 논의 및
'총동창회' 명칭 안내 외
- 27 모교 소식
이화, AI 시대 첨단연구의 서막을 열다 외
- 32 대학(원) 소식 사회과학대학 외
- 36 과(학부) 소식 불어불문학과 외
- 44 지회 소식 남가주(LA) 지회 외
- 53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특별전
옷(衣), 시간을 입다
- 54 동창 근황 김현순 동창 외
- 68 동창이 펴낸 새 책
『너에게 쓴다』 외



03



10



14



18



22



24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시편 73:26)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만물이 아름다운 절기임에도,
마치 광야길 한복판 메말라서 버려진 가지처럼 시들어가는 삶에 직면하여
부르짖어 두 손 들고 마음 모아 당신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온몸이 쭈시고 녹아져서
보이시는 당신의 모습 하 낮설어 멈칫거리고,
이끄시는 당신의 뜻 도무지 알 수 없어 머뭇거리며,
뽐으시는 당신의 숨결 자못 답을 수 없어 혈떡입니다.
그럼에도,
하늘과 땅 아래 당신 외에 누가 있음으로
한숨조차 토해낼 수 없는 구부러진 마음 깃 오롯이 세워 주고,
구겨지고 형클어진 마음 술 오롯이 펼치어 주며,
달아 헤어지고 찢긴 마음 자락 오롯이 싸매어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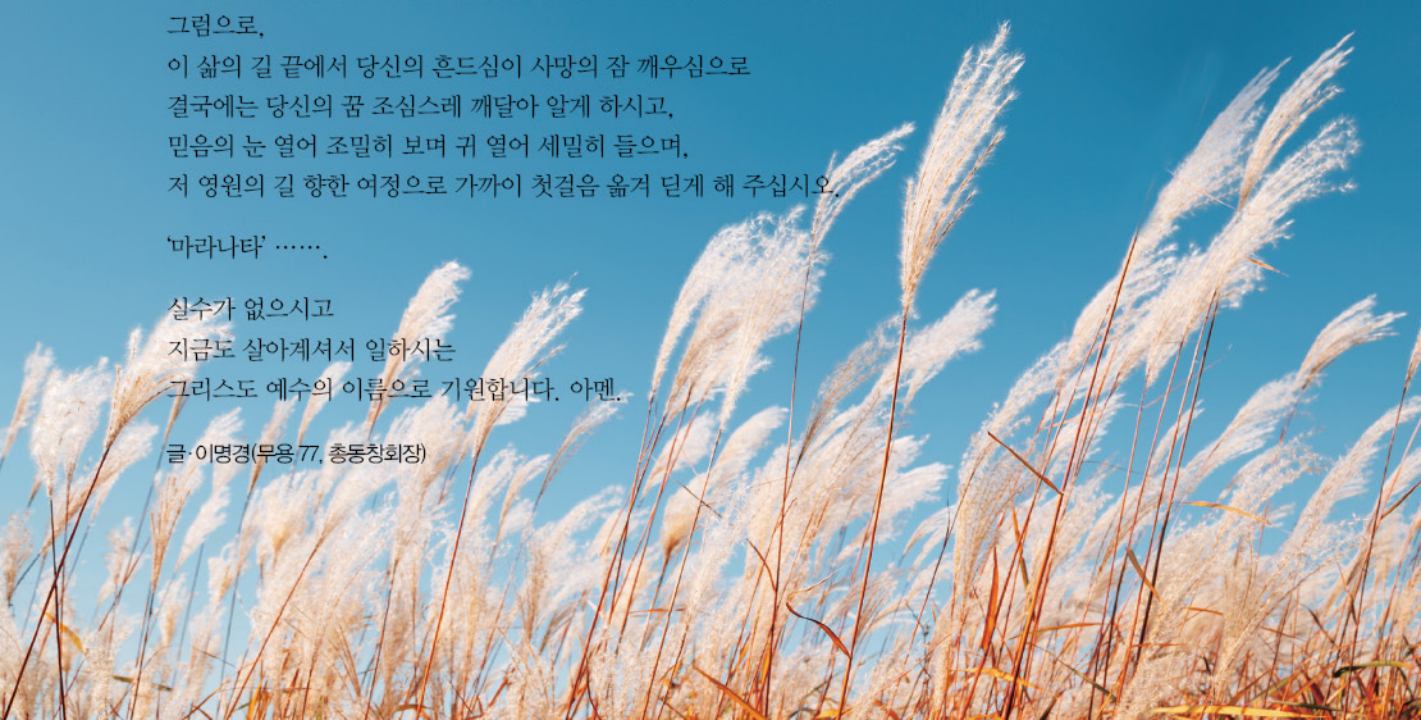
당신의 빛 비추심으로 돌이키는 은총 허락하셔서
살아 있음의 고통으로 드리는 이 간구 물리지 않으시고,
살림의 역동으로 당신의 사랑 거두지 않으시며,
거룩한 땅 불꽃에 둘러싸인 떨기나무 아래 무릎 꿇게 해 주십시오.
그럼으로,

이 삶의 길 끝에서 당신의 혼드심이 사망의 잠 깨우심으로
결국에는 당신의 꿈 조심스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의 눈 열어 조밀히 보며 귀 열어 세밀히 들으며,
저 영원의 길 향한 여정으로 가까이 첫걸음 옮겨 던게 해 주십시오.

‘마라나타’ …….

실수가 없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글·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장)





2025년 총동창회 대바자회

이화의 이름으로 펼친 풍성한 가을 바자회

총동창회는 9월 23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모교 생활환경관 및 학생문화관 주변 광장에서 대바자회를 개최하였다.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완연한 가을 날씨 속에, 각 학과와 대학(원) 및 단체 50여 개 팀이 정성껏 준비한 70여 개의 부스가 펼쳐졌다. 총동창회 기금 마련 및 동창들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1969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대바자회에는 장명수 이사장을 비롯해 이경숙·김영주·남상택 총동창회 고문과 이향숙 모교 총장, 최윤정 대외협력처장이 찾아와 격려했고, 또한 많은 동창과 재학생, 교직원들이 나눔에 동참했다.

김경령(수학 84) 총무의 사회로 시작된 개막식에

서 조선영(영문 74) 선교부장은 “바자회가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되며, 모든 손길 위에 섬김과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 드린다”고 간구했다. 이

어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장은 “선물같이 주어진 화창한 날씨와 동창 선후배 덕분에 멋진 장터가 준비됐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우리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시간으로 기억되는 장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대바자회의 문을 활짝 열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

총동창회 새로 제작한 이화 장우산 등 선보여

총동창회에서는 매년 인기 품목인 저염 백명란 1kg을 비롯해 이화 선캡, 튼튼한 대형 장바구니, 다크그린 색상의 곡자형 손잡이로 제작된 이화 장우산 등 새로운 품목을 선보였다. 가을별 덕분에 선캡이 불티나게 판매됐다. 총동창회에서는 폭염에 대비해 각 부스에 선캡·부채·생수·쓰레기봉투를 이화 장바구니에 담은 '대바자회 키트'를 제공하였고, 학생문화관 숲 주변으로 장터를 넓게 확장해 부스를 배치함으로써 부스에서 판매 중인 동창들이 더위를 피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총동창회 산하 '이울(영원한 이화인·올해의 이화인 연합회)'은 전통 손맛을 살려 직접 제작해 온 주성희(의직 74) 동창의 흑임자가루와 흑임자기름, 전통 장류 등과 함께 시원한 전통 식혜를 판매했다.



바자회장을 찾은 장영수 이사장, 이향숙 총장(왼쪽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을 반갑게 맞은 이명경 총동창회장, 김영주 고문(왼쪽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한은주 부회장(오른쪽 끝)

또한 이소연(성악 87) 동창이 기부한 '오브엠' 구두의 킴포트화를 3~4만 원의 가격가로 제공해 신발을 신어보려는 동창들과 가방을 구경하는 발걸음으로 온종일 부스가 북적였다.

식욕을 자극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먹거리 매장

바자회 장터에서 식욕과 구매욕을 자극하며 활력을 불어넣는 먹거리 매장은 올해는 두 군데서 마

과의 특성을 살린 제품이나 핸드메이드로 만든 특색있는 제품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바자회 장터에서 식육과 구매육을 자극하며 활력을 불어넣은 먹거리 매장. 녹두전과 각종 전, 청굴 에이드, 젤라토 등 많은 먹거리가 불티나게 팔렸다

런됐다. 생활환경관 입구에서는 물리학과와 사회학과가, 통로 안쪽에서는 통계학과와 조형대(녹미회)가 각각 자리 잡았다. ‘기절초풍 녹미술랭’ ‘그림은 못 사도 이진 먹고 간다’라는 재치 있는 문구로 눈길을 끌었던 조형대는 전화 주문과 신속 배달 서비스를 일찌감치 홍보하며 소떡소떡과 떡볶이, 부추전을 들고 장터를 누비고 다녔다.

이웃한 통계학과는 야채전, 배추전, 김치전으로 대결하며 150장을 완판시켰다. 동창들은 “재료에 진심을 다했다”면서 “시어머니도 모르신다. 김치 없어진 줄!”이라고 말하며 뜨거운 불판 앞에서도 유쾌한 웃음을 터뜨렸다. 또한 작년에 이어 동창기업인 ‘제니퍼룸’(대표 박은선, 통계 97)의 후원으로 선물 꾸러미 20여 개를 준비해, 바자회장을 찾은 통계학과 재학생(차민정·정아영, 대학원 2학기) 등에게 전달하며 선후배 간의 정을 도담게 하는 훈훈한 모습도 보였다.

물리학과는 해물 녹두전과 떡볶이·어묵·메밀전병·냉음료를 고루 갖추고 허기진 발길을 붙들었다. 물리학과 90년 졸업 동창들이 주축이 돼 열심히 준비했다는 홍은경(물리 90) 동창은 “전날 직접 녹두

를 갈고 손수 담근 김치를 다져 넣어 100인분을 마련했다”라고 말하면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빈대떡을 연신 뒤집었다. 불판의 열기와 함께 얼굴도 별경게 익어갔지만 끊이지 않는 손님을 보며 함박웃음을 그치지 않았다. 맛은편 매대에서 역시 불티나게 팔린 청굴 에이드와 청굴청은 홍은경 동창의 부모가 제주에서 직접 재배한 무농약 청굴로 직접 만든 것이라며 천연의 손맛을 자랑했다. 물리학과 동창회의 바자회 수익금은 재학생 후배를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한다고 한다.

바로 옆에 자리한 철학과는 김영희(철학 89) 동창이 밤새 원두를 직접 핸드드립 해 100인분의 커피와 함께 컵케익을 가져와 제공했다. 고소한 부침냄새와 시원한 커피가 안성맞춤이다. 이밖에 최지영(철학 94) 동창이 기증한 이국적인 인형과 명품 도자기 그릇은 이목을 끌며 순식간에 동이 났다. 한편, 김지은(철학 94) 동창은 직접 쓴 동화책 『어린이는 멀리 간다』(창비)에 친필 사인을 해 선물로 나누며 물품을 구매한 동창들에게 특별한 기쁨을 더해 주었다. 철학과 동창들이 의기투합해 마련한 바자회 물품 수익금은 후배들이 사용하는 세미나

실 책상을 장만하는 데 쓸 예정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체육대학의 도넛 3종 세트(피넛글레이즈, 시나몬, 우유 크림)와 김밥(이올연합회), 떡 세트(장식미술과) 등의 먹거리가 동창들의 든든한 한 끼를 책임져 주었다.

추석을 앞두고 인기리에 판매된 명절 준비 용품

추석을 앞두고 명절 준비 용품도 인기리에 판매되었다. 신학대학원은 매년 꾸준히 찾는 강릉한과와 참기름, 들기름, 참깨소금을 선보였고, 무용과는 단골 품목인 전통 장류 된장과 함께 신안 고등어 주문 접수로 구매자의 발길을 모았다. 수학과에서는 명절 상차림에서 빠질 수 없는 김치를 다양하게 조합한 '팔도맛' 김치 세트를 구성했다. 포기김치, 알타리, 나박김치, 파김치, 무말랭이 등 다양하게 조합한 세트 상품과 함께 시식 코너까지 마련해, 동창들이 맛을 보며 즐겁게 고르는 모습이 이어졌다.

정외과에서는 대천김을, 중문과와 인공지능대학은 청정지역 '남극소금' 세트 제품을 준비해 명절 선물용으로 인기를 끌었다. 작곡과는 2년 연속 완판 기록을 세운 남해 명물 아귀포를 인상 전 가격

으로 다시 선보였으며, 저염 껌질 캐슈너트(융합보건학과), 그레놀라(장식미술과), 두유 선물 세트(화학과) 등 건강식품을 마련해 동창들의 장바구니를 채웠다. 이 밖에도 스페셜티 커피 원두와 콜드브루 원액을 마련해 깊은 품미로 분위기를 더한 국제사무학과를 비롯해 다수의 학과에서 커피 원두를 준비했다.

명절 음식에는 조리 기구도 한몫하는 법, 경영대학에서는 이윤정(경영 87) 동창의 후원으로 르크루제 제품을 50~80%까지 할인 판매했다. 평소 고가라 망설였던 르크루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마련할 기회가 제공돼 명절을 앞둔 동창들의 호응을 얻었다.

전공 특성을 살린 하나뿐인 상품들

전공 특성을 살린 조형대와 디자인대학원의 독특한 상품들도 바자회의 또 다른 볼거리였다. 조소과는 '만들기 장인들의 집합체'라는 홍보 문구 아래 오주연(조소 90)·신혜용(94)·윤수진(01)·이수원(12)·이우현(15) 동창이 각기 가족지갑·진주목걸이·리본핀·(액막이)명태 장식 키링 등 100% 수제 소품을 내놓았다. 바로 옆 부스인 도예과는 이

추석을 앞둔 명절 선물, 그리고 아나바다는 바자회의 꽃이었다





총동창회와 이을연합회, 총동창회 선교부에서 판매한 상품과 바자회를 찾은 임원 및 동창들

성민·최보현(도예 25) 동창이 한 달 넘게 준비한 도자기 접시와 수저받침, 하트 키링, 자석 배지 등 아가자기한 소품을 선보여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장식미술과(패션디자인 전공)는 이재민(장미 00) 동창의 의류 브랜드 '엠로프'의 제품을 전시해, 독특한 디자인을 시작하려는 동창들로 북적였다. 디자인대학원은 이화 배꽃 마크를 새긴 머리밴드와 양말을 특별 제작해 선보여 재학생들의 사랑을 받았다. 김영신(대학원 04, 단국대 교수) 동창의 지휘로 바자회를 위해 한 달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김 동창의 딸 김시현(체육과학부 24학번) 학생이 모델로 착용하고 응원에 나서 관심을 모았다. 류선미(디대원 3학기 재학중) 씨가 만든 성수동 수제화 'YATO'는 감각적인 디자인이 돋보여 눈길을 사로잡았다. 전문가의 눈으로 엄선했던 라부부 인형 키링도 관심을 끌었다.

사회적 가치와 나눔을 실천하다

바자회에는 사회적 가치와 나눔을 실천하는 제품으로 관심을 모은 부스도 있었다. 특수교육과는 자폐인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디자인 상품으로 제

작·판매하는 사회적기업 '오티스타'의 제품을 선보였다. 이 기업은 모교의 이소현(특교 83) 교수가 대표로 이끌고 있으며, 매년 참여하는 자폐 디자이너 유나모 씨가 올해도 직접 부스를 지켜, 새로 제작한 북극곰 클립 보더와 메모지를 능숙하게 소개하며 동창들과 따뜻하게 소통했다.

사회학과는 한국양봉농협과 연계해 국내 최초 천연 벌꿀 젤라토를 판매해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밤꿀·아까시꿀·벚꽃꿀 세 가지 맛의 색상이 다양한 아이스크림을 배경으로 인증 사진을 찍는 모습도 보였다.

또한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는 전통 칠보공예 제품을 준비해 은 나비 브로치 등을 선보였다. 권미경(커미부 88) 동창은 "이 물품은 범죄 피해자들의 자활을 돕고, 수익금은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경기도 사회적기업인 '무지개 공방'에서 제작한 것"이라며 열성적으로 소개했다. 한편, 대학원 동창회는 매년 청정원의 후원을 받아 곱쌀국수, 카레 여왕 등 즉석식품을 판매해 왔으며, 올해 역시 판매 수익금을 모아 후배들의 장학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총동창회 선교부는 '이

대 동창 140명 선교사' 후원을 위한 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두 종류의 가방을 제작해 각 1만 원에 판매하였고 200장이 넘게 팔려나갔다. 총동창회 선교부는 가방과 함께 '이화동창 선교사 기도수첩'을 나누어 주었으며, 다락방에서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이대동창선교부 화요기도회' 안내 카드를 동봉해 동창들을 기도 모임에 초대했다.

특색있는 제품으로 눈길을 끈 이색 부스

국내 지회 중 유일하게 참가한 대전 지회는 정성이 담긴 종이접기 제품과 수제 손뜨개 가방, 키팅 등 소품류를 출품했다. 송명옥(생명 82) 동창은 직접 제작한 봉투를 설명하며 “한지를 접어 봉투를 만들고, 그 위에 서예가인 황순자(교육 69) 동창이 훈민정음 판본체로 손수 ‘고마워요’ 글씨를 써넣었다”라고 설명하였다. 송 동창의 작품들로 채워진 전시장 같은 분위기의 부스는 감탄을 자아내게 했다.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영문과는 ‘이화 영문 100년’ 기념 책자와 기념 가방·참 장식을 함께 판매해 의미를 더했다. 중문과는 학과 특성을 살려 붉은 등 장식으로 부스를 꾸미고, 전통 문양을 넣은 가방 등 이국적인 물품을 타이완에서 공수해 와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한 화학과는 아로마 테라피 시향 체험 부스를 운영해 학생들의 관심을 모았다. 컴퓨터공학과와 인공지능학과의 함께 한 인공지능대학은 재학생 특별 할인 이벤트를 열어 ‘핑구 컬래버 에디션 속눈썹 영양제’를 큰 폭의 할인가에 판매하며 관심을 끌었다.

한편, 생활용품과 화장품도 빠질 수 없는 인기 품목이다. 경제학과는 이정애(경제 86, LG생활건강 대표이사) 동창의 후원으로 LG생활건강의 치약, 비누, 샴푸 등을 풍성하게 내놓았으며, 생명과 학과는 학과 특성을 살려 NK세포 배양액을 기반으로 한 녹십자의 ‘분자 화장품 4종 세트’를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제약학과와 약학과는 글루타치온 콜라겐 화장품과 루테인을 각각 70퍼센트 파격 할인해 제공했으며, 박카스 젤리로 활력을 더해 주었다. 또 건강한 체력을 책임져 줄 것 같은 체육학과에서는 매년 덴마크 유산균과 프로폴리스 가글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해 믿고 살 수 있는 건강식품으로 호응을 얻었다.

가족을 생각하며 준비한 용품들 인기

한편, 오전 한차례 폭풍 쇼핑으로 허기진 동창들

바자회장을 찾은 동창들은 주머니를 열고, 이야기꽃을 피우며 바자회를 반겼다



은 EAT ZONE과 학생문화관 숲에 있는 벤치에 도란도란 모여 앉아 간단히 요기하며 수다 꽃을 피우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다시 장터로 발걸음을 옮겨 액세서리와 스카프, 옷가지 등을 여유롭게 둘러보며 바자회 정취를 만끽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펼쳐졌다. 독문과와 불문과는 다양한 액세서리와 함께 가방, 스카프 등으로 발길을 붙들었고, 또한 바자회장 이곳저곳에 다양한 디자인의 신발 부스가 차려져 인기를 끌었다.

바자회장에서는 바이네르 신발 가방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목격되었다. 사학과가 '바이네르' 제품을 5만 원 균일가로 판매했는데,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께 선물하려는 동창들의 발길이 이어진 것이다. 김수자(사학 89) 동창은 "사전 주문 때 인기 있었던 디자인과 사이즈로 준비해 왔는데, 현장에서는 다른 디자인과 사이즈를 찾는 동창들이 많아 정작 팔 물량이 모자랐다"라며 웃음을 지었다.

가정관리학과에서는 뉴욕에 거주하는 박홍순(가관 72) 동창이 기증한 아동용품들을 판매했는데, 해외 수입 백화점 정품 머리밴드와 머리핀, 털모자와 목도리, 캐릭터 가방 등은 젊은 엄마들 사이에

서 입소문이 나면서 바자회장에서 "아동용품 파는 곳이 어디냐"며 묻는 사람도 심심찮게 등장했다.

바자회의 꽃, 아나바다 장터

바자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아나바다는 올해도 알차게 준비됐다. 학생문화관 앞에 자리한 음대와 사회과학대 부스 주변은 아나바다 부스가 몰려 더욱 활기를 띠었다. 관현악과는 아나바다 대표 부스답게 8년째 변함없이 동창들이 믿고 찾는 명성을 이어갔다. 해마다 동창들이 아껴둔 물품을 기증받아 5천 원에서 1만 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했으며, 준비한 행거 세 개 분량의 의류가 순식간에 하나로 줄었다. "늦게 오면 못 사요, 내년엔 일찍 오세요"라는 말에 아쉬운 발길을 돌렸다. 한국음악과는 가방과 신발을 2만 원, 먼 파자마를 1만 원에 판매해 준비 물량이 매진됐다가 추가 물품을 들여와 판매를 이어갔다. 이 밖에도 종교음악과, 피아노과, 성악과, 심리학과 등이 의류·머리핀·가방·스카프 등 다채로운 아나바다 물품을 마련해 동창들이 구경하고 득템 할 수 있는 즐거운 장터가 되었다.

오후 5시 마감을 앞두고는 일찌감치 준비한 물품이 동나 상자를 싸며 매대를 정리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였다. 다급해진 동창들은 남은 물품을 들고 다니며 떨이 판매에 나서며 마지막까지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이다. 아쉬움과 뿌듯함이 교차하는 가운데, 동창들은 "날씨가 좋아 큰 도움이 됐다"라며 올해 행사를 무탈하게 마친 것에 감사의 마음을 나눴다. 내년에는 더 많은 상품을 준비해 뛰어보리라 다짐을 하며 내년을 기약했다.

글·이영희(사학 88, 이화동창 편집위원) /

최지영(사학 89, 총동창회 홍보부장)



만나고 싶었습니다 /

‘가야금산조 및 병창’ 국가무형문화재 이영희 동창

가야금 손끝에 인생을 맡기다



강렬했던 한여름 태양 위로 가을바람이 투명하게 스며드는 일요일 늦은 오후, 가야금 명인 이영희(사회 62) 동창의 자택을 찾았다. 우주항공,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기업들이 모일 미래도시 제3판교 테크노밸리 금토지구를 지나 한적한 산길을 따라갔다. 인적 드문 산기슭,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길, 이미 누군가 여러 번 다녀갔을 법한 흔적들……. 분명 연습실이 자택에 같이 있다고 했다. 집터 151㎡를 포함해 토지 5,474㎡를 국가에 기부했다고 했으니 규모가 꽤 클 것이라 예

상했다. 그 길을 따라가면 그만한 규모의 집이 나올지 가끔 불안감이 스쳐지나갔지만 이 동창의 말을 굳건히 믿었다.

과연, 주소지에 도착하니 하얀 대문의 새하얀 집이 눈앞에 나타났다. 벨을 누르자 누군가 쟁걸음으로 황급히 달려왔다. 꽃분홍 모시 적삼에 알록달록 툄립이 그려진 몸빼 바지. 잠시 눈을 의심했다. 단아한 한복을 차려입고 가야금 선율로 무대를 가득 채웠던 국가무형문화재 이영희 동창이 맞는 것일까? 대문을 지나 집으로 들어가는 길, 왼편의 텃밭에는 배추 모종이 줄지어 심어져 있었다. 진땀개 두마리가 순하게도 쫓지도 않고 얄전히 꼬리를 흔들며 손님을 맞았다. 모든 것이 주인을 닮았는지 고요하고 정갈했다.

“어서 와요. 고구마 줄기 김치 담그느라 내 손이 이려네.”

첫 마디였다. 아주 조용히. 혹시 결레가 될까 자신의 행색을 설명했다. 곧이어 냉장고에서 꺼낸 고구마 줄기 김치 한 입을 쓱 넣어줬다. 아삭한 식감에 상큼한 맛을 더한, 색다른 맛이었다. 독특한 진로를 개척해 온 이 동창의 행보를 닮아 있었다.

두려움 없이 흥에 겨워 선택한 예인의 길

“내 인생은 가야금의 울림과 함께였어요. 그 소리 안에 기쁨과 슬픔, 모든 시간이 들어 있지요. 내 고향 군산은 풍요로운 문화와 예술로 가득한 항구 도시예요. 어려서부터 명절 때면 풍장꾼들을 따라다니며 풍물과 소리와 춤에 빠졌어요. 12세 무렵 춤을 배우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어머니를 졸랐어요. 생각이 깨인 어머니께서는 뭐든 하고 싶은 것을 해보라며 시켜주셨지요.”

그때부터였다. 소화권번에서 민살풀이 춤을 가르쳤던 도금선의 춤에 흠뻑 빠져들게 되었다. 군산의

명기 김향초에게 승무, 바라춤, 살풀이 등을 배웠다. 풍류 명인 이덕열에게 가야금과 단소, 양금 등을 배우며 음악에도 깊이 빠져들었다.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산조에 매료되어 권번을 찾아가 이운조에게 산조를 배웠다.

이화 선배였던 언니 덕분에 자연스럽게 이화를 선택하며 서울로 유학 왔던 이영희 동창이지만 가야금에 대한 열망을 저버릴 수 없었다. 당시 유일하게 국악과가 개설되어 있던 덕성여대를 무작정 찾아갔다. 장사훈 교수를 만났다. 갓 스무 살의 뜨거운 열정을 지닌 이영희 동창을 바로 알아보고는 김윤덕(1968년 가야금산조 및 병창의 전승자로 지정된 예능보유자)에게 안내했다.

“담을 끼고 가면 운현궁 행랑채에 김윤덕 선생님이 계시실 거라고 하셨어요. 선생님의 가락이 귀에 박히고 마음에 박혔어요. 사랑에 빠진 것처럼요.”

몸으로 가락을 익히는 법을 배웠다. 김윤덕 명인의 방식은 단호했다. 반복에 반복, 가락에 가락, ‘몸이 기억할 때까지’ 이영희 동창은 고된 수련을 이어갔다. 수없이 좌절하고, 다시 일어섰다. 몸과 마음으로 배우는 전통의 정신은 이 동창에게 예술의 기초가 되었다. 낮에는 이화에서 공부하고, 해질녘이면 김윤덕 명인에게 수련을 받았다. 친구들이 과소풍을 가거나 극장을 찾을 때, 그는 가야금 줄을 뜯었다. 때로는 밥때를 놓쳐 굶기도 일쑤였다. 당시 진관 기숙사 생활을 하던 이 동창은 매일 점호시간이 임박해서야 돌아오곤 했다. 지칠 줄 몰랐다. 마치 숙명처럼 예인의 길을 따라갔다. 분명 어딘가에 목적지가 있음이 분명했다. 구불구불 산길처럼 앞을 예측할 수 없었지만 두려움이 없었다. 내면에서 솟구치는 흥이 이 동창에게 확신이 되었으리라.

3학년 때부터는 판소리 고수이며 아쟁, 호적 산조의 명인 한일섭에게 아쟁을 배웠다. 대학 시절이



후학 양성에 정진한 이영희 동창

끝나갈 무렵, 이 동창은 전국신인방송국악경연대회에서 아쟁 연주로 1등을 수상했다. 이 수상은 단순한 영예가 아니었다. 그녀를 국악교육 현장으로 이끈 결정적 계기였다. 국악예술학교 초대 교장이었던 박헌봉에게 발탁되었다. 이후 18년 동안 국악예술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며 후학을 양성했다. 당대 국악계를 이끌던 기라성 같은 명인 성금연, 박귀희, 박초월, 한영숙, 김소희, 신쾌동, 이창배, 김광식 등과 함께 재직하며 음악적 깊이를 더해 갔다. 특히 성금연 선생에게 병창을 배우며 가야금의 선율 위에 노래로 감정을 엮는 법을 익혔다. 누군가에게는 선생이면서도 누군가의 제자 같은 마음으로 국악에 젖어 들었다.

니를 낮추고, 전통을 세우며 후학 양성에 정진

1972년, 이영희 동창의 국악 인생은 깊이를 더해가는 전환점을 맞았다. 국악한국민속예술단의 일

2022년 개인 토지 기부 기념행사





2003년 로키산맥에서 열린 해외입양아 교육



대학시절 군산여고 친구들과

원으로 뒀던 올림픽 기념 세계 순회공연에 참여했을 때였다. 김승희, 박귀희, 한영숙 등 당대 최고의 국악인들과 함께 유럽,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등 24개국을 돌며 우리 음악을 알렸다. 그 공연은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선 민족 정체성의 울림이었다.

“서독에서 만난 파독 광부가 제 손을 꼭 붙잡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고향 생각 많이 났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났어요.”

그녀의 가야금은 단지 악기가 아니라, 이국땅에서 외롭게 살던 이들에게 고향의 품이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되었다. 공연을 통해 우리 전통을 알리는 것이 후학 양성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나라가 이 동창의 마음 안으로 온전히 들어온 순간이었다.

1991년 드디어 대한민국은 이영희 동창을 무형문화재 가야금산조 보유자로 지정했다. 전통 예술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이 동창은 겸손했다. 자신의 후광이 빛날수록 더욱더 낮추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내 이름보다 제자들의 이름이 더 빛나길” 바라며 후학 양성에 정진했다.

‘나의 스승 이영희’ 글을 통해 제자 이효분(추계예대 명예교수)은 “선생님은 살아 있는 성음을 가르치기 위해 구전심수로 악보 없이 가르치셨다. 마

음과 마음을 이어가는 공부였다. 가락을 잊고, 맺고, 풀고를 반복하며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가르침에는 여유가 있고, 위엄이 서려 있었다”라고 상기했다.

모교 음악대학 학장인 곽은아(한음 85) 동창은 “초등학교 시절 주법 하나하나를 연주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가르쳐주셨다”라며 자신의 가야금 연주 기본수법에 대해 “그 시절 너무나도 잘 배운 열 살 버릇”이라고 자랑했다.

김승희(국립전통예술고 교사), 이정희(지향한국음악연구소 소장), 정길선(경기청소년국악관현악단 단장)을 비롯한 그 시절 제자들은 하나같이 공감했다. “몸을 풀고 나를 온전히 손끝에 올려놓고 음 하나하나에 에너지를 쏟아야 물 흐르듯 제대로 된 성음이 나온다”라고 가르쳤던 스승 이영희 동창이 야말로 ‘전통예술 발전을 위해 모두를 헌신하신 예술인의 본’이라고.

10년 동안 입양아를 위해 가야금 선율 전해

대한민국 국악계를 대표하는 가야금병창으로 자리 잡은 2000년. 밀레니엄 시대의 막을 열던 그때, 이 동창은 국악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으로 추대되었다. 이후 세 차례나 연

임하면서 국악 행정가로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재임 시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면 해외 입양아들을 위한 국악 교육 사업이었다. 미국 전역, 호주, 유럽 등을 돌며 입양된 한국 아이들에게 전통문화를 알리고, 가르쳤다.

“이화 동창 심현숙이 어느 날 이 사업을 제안했어요. 그 친구는 1·4 후퇴 때 부모를 잃은 수많은 전쟁고아를 보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살기로 한 친구였어요. 입양 기관(현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일했던 그 친구는 미네소타로 건너가서 그녀가 해외 입양시킨 아이들이 올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사업을 다방면으로 펼치고 있었죠. 우리 것을 알려주고 싶다고 했어요. 예산을 받기 위해 몇 날 며칠을 정부 부처에 가서 읍소했어요. 정성이 통했는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아이들을 만났어요. 입양되었던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국악을 배우는 걸 보면 눈물이 났어요. 어디에 있든 우리는 하나였어요.”

그 사업을 무려 10년간 이어갔다. 풍물을 비롯한 제기차기, 소고춤, 부채춤 등도 함께 가르쳤다. 추석을 맞이하여 송편 만들기도 했다. 입양한 가정의 부모들이 현대차를 몰면서 행사장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울컥했다는 이 동창. 아이들의 모국이 생산하는 자동차를 탈 만큼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이 이 동창의 마음에 진한 감동을 안겼다.

이화의 음악 후학 양성에 힘 쏟고 싶어

이제 이 동창은 여생과 자산을 오롯이 후학 양성을 위해 쓰고자 결심했다. 2022년 이 동창은 자신의 전 재산을 후학을 위해 기부했다. 20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과 자택을 문화재청에 내놓아, 전통 예능 전수교육관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국악 하는 아이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됐습니다. 지금 당장 이 세상을 떠나도 괜찮아요. 아쉬울 게 없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했거든요. 아, 한 가지가 남았네요. 잊고 있었던 이화가 나를 기억해 준 것에 대한 보답이 남았네요.”

지난 5월, 60여 년간 국악 예술 발전과 전통문화 전수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한 제23회 ‘자랑스러운 이화인상’은 그녀에게 특별했다. 이화에서 사회학을 전공했지만 전혀 무관한 진로를 확장해 왔던 그녀였기에 자신을 기억해 준 이화가 각별했다.

새벽 다섯 시면 일어나 텃밭을 일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영희 동창. 무대를 내려오면 여느 고령의 아낙과 다름이 없다. 평일엔 친구들과 산책을 한다. 병원도 들르면서 일상을 보낸다. 그런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있다. 새 옷을 사는 대신 제자들의 등록금을 냈던 젊은 날처럼 후학 양성만을 생각한다. 일요일 오전이면 40여 명의 제자들이 집으로 찾아와 가야금을 탄다. 이제 이화의 음악대학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 동창은 생각한다. 고요하고, 깊게 가야금의 선율에 모든 것을 맡긴 것처럼 한 길을 향한다.

“가야금은 사람을 품는 악기예요. 예술도,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진짜예요.”

이화와 멀리 떨어져 살았다고 말하지만 그녀에게서 이화의 나눔 정신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평생 해온 이 동창.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와 걷고, 누군가에게 한국의 소리를 들려준다. 그녀의 말은 삶에 대한 감사이자, 국악에 대한 헌신, 그리고 이화라는 울타리에 대한 묵직한 고백이다. 국악계의 거목, 이 동창에게 가는 길이 아직은 좁은 산길이나 머지않아 혁신과 보수가, 미래와 과거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선율의 그림이 곧 펼쳐질 것이다.

글·최정은(커미부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끈끈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반세기를 이어온 화합의 하모니



약학대학 동창 합창단 단체 사진(2025년)

1974년 창단된 약학대학 동창 합창단은 50여 년 동안 선후배 동창들의 애정과 헌신 속에 맥을 이어 오고 있다. 음악을 통해 교류와 봉사를 실천하며 약학대학 동창회의 문화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창단의 시작 그리고 숨은 주역들

약학대학 동창 합창단은 1974년 5월 총동창회 합창 경연대회 참가를 위해 그해 4월 약학대학 동창 30여 명이 모인 것을 시작으로 창단되었다. 당시 약학대학 동창회 회장이었던 고(故) 전효심(약학 50) 동창이 앞장서서 합창단을 조직했다. 장현숙(약학 60, 약학대학 동창회 고문) 동창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전효심 회장님은 고 김준곤(한국대학생선교회 CCC 설립자) 목사님의 사모님이셨어요. 그 인연으로 당시 김준곤 목사님의 비서실장이자 CCC 간사로 계시던 민산용(극동방송 사장 역임) 장로님을 지

휘자로 모시고 그분의 지도로 CCC 본부에 모여 합창 연습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창단 멤버로서 자타 공인 ‘약학대학 동창 합창단 사(史)의 산증인’으로 불리는 장 동창은 “이후 30여 명의 단원들이 매주 모여 연습을 이어가며 목소리가 다듬어지고 합창 실력도 늘었어요. 해를 거듭해 신입 합창 단원들이 합류하면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져 오늘에 이르렀습니다”라고 덧붙인다.

많은 인원이 모여야 하는 까닭에 연습 장소를 구하느라 애로사항이 많았다. CCC 본부를 시작으로 동창들의 인맥과 정보를 총동원해 교회, 루디아어린이선교회, 극동방송 강당, 심지어 동창의 집과 상가까지 피아노가 있고 상황이 되는 곳이면 어디서든 연습이 이루어졌다. 허은경(약학 87, 약학대학 동창회 부회장) 동창은 “당시 어려운 환경에서도 약학대학 동창들의 깊은 애교심과 도움 덕분에 꾸준히 유지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경희(약학 88, 약학대학 동창회 문화부장) 동창은 “이강희(약학

66) 선배님은 자신의 상가 건물에 피아노까지 흔쾌히 제공하셨는데 이후 연습 장소가 바뀌면서 그 피아노를 지금의 약학관 B동 교수회의실에 기증하신 일은 지금도 귀한 이야기로 회자된다”고 밝히며 “매월 진행되는 약학대학 동창회 선교부 예배와 문화부 행사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후일담을 전했다.

기억에 남는 연주회와 특별한 무대들

1984년 창단 10주년 기념 제1회 합창발표회가 모교 음악대학 국악연주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장현숙 동창은 “당시 12월 한파에 난방이 안 되는 곳에서 연습하느라 애를 먹자, 신촌역 앞에서 약국을 운영 중이던 문영순(약학 64) 동창이 집에서 석유난로까지 가져오는 투혼을 발휘했다”고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그후 9년 만인 1993년에 제2회 합창발표회에서는 마무리 순서에 단원들의 남편과 아들 등 가족이 함께 무대에 올라 5곡의 노래를 불러 합창단원 모두에게 더욱 풍성하고 뜻깊은 무대로 특별한 추억을 남겼다. 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약학대학 동창 합창단은 그 세월만큼이나 이룬 성과와 업적도 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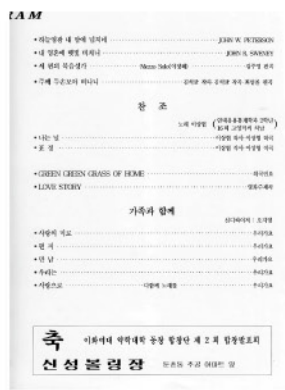
륭하다. 1980년 7월 KBS 노래 경연 프로그램에서 특상을 수상해 받은 TV를 고아원에 기증하는가 하면, 교수 정년퇴임식과 약학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도 초청되어 노래 공연을 펼쳤다. 특히, 연 1회 ‘정원노인요양원(치매노인요양센터)’ 방문과 합창단원 자녀의 결혼식에 초청되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축하(〈주께 두손 모아 비노니〉)를 부른 일은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 있다.

그 외에도 약학대학 동창 합창단은 △한국임상약학협회 창립총회(1989) △대전 극동방송 ‘한낮의 멜로디’(1992) △약학관 B동 건축 동판 제막식(1994) △(주)약계신문 주최 소년·소녀 가장돕기 제 1회 약인가곡제(1996) △모교 총학생회 주최 스승의 날 기념 감사예배(1999) △한국여약사 후원의 밤(1999)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 후원의 밤(2000) 등 수많은 모임에 참석해 아름다운 하모니로 행사를 빛냈다.

“거슬러 올라가면 학창 시절 매년 10월 모교 중강당에서 개최되는 약학대학 창립기념 ‘주홍제(합창제)’가 약학대학 동창 합창단의 시초이자 뿌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는 장 동창의 말에 자리에 모인 동창들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약학대학 동창 합창단 초기 멤버들과 1984년 열린 제1회 약학대학 동창 합창단 합창발표회(사진 왼쪽부터)





가족들이 참여해 더 즐거운 잔치가 펼쳐진 1993년 제2회 약학대학 동창 합창단 합창발표회 사진과 가족들의 이름이 적힌 프로그램

세대를 잇는 합창단의 운영 비결

현재 모교 동창회 합창단 중 오래된 팀일수록 신규 모집이 안 되어 조직을 꾸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약학대학 동창 합창단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비결은 남다른 운영 원칙에 있다. 매년 5월 30일 총동창회 행사에 참여하는 졸업 50주년 동창들과 약학대학 동창회 임원진은 무조건 합창단원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여기에 기존 합창단 멤버까지 30~40명 규모로 각종 무대를 준비한다. 졸업 50주년 동창들은 이 연습 과정을 약학대학 동창회 총회 때 졸업 50주년 동창 기념 공연을 위한 워밍업으로 활용한다. 황미경(약학 86, 약학대학 동창회장) 동창은 “졸업 50주년 선배님들이 중심이 되어 매년 동창의 날 합창제 무대를 이어가고 약학대학 동창회 총회에서도 공연 기회를 마련하면서 합창단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은경 동창은 “현재 약학대학 동창 합창단은 졸업 50주년 동창들인 70대 중반이 제일 많고, 50대와 60대가 그다음을 차지하는데, 80대도 몇 분 포함되어 있다”며, “그중 이정혜(약학 64) 선배님은 창단

이후 현재까지 51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활동을 이어온 ‘레전드 단원’으로서 그 열정과 꾸준함은 후배들에게 남다른 귀감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학대학 동창 합창단은 연습 장소 섭외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고민이 많다. 황경수(약학 88, 약학대학 동창회 총무) 동창은 “일반 가정집에서 연습하면 민원이 발생하고 특히 학원이 많은 지역은 더 어렵다. 그래서 평일에는 교회를 알아보지만 신도가 아니면 빌리기 쉽지 않다”며 “지금은 성당에서 모이는데 유료 연습장을 빌리다 보니 비용 부담이 꽤 크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합창단을 운영하

왼쪽부터 이경희·허은경·황미경·장현숙·황경수 동창. 장현숙 동창은 창단 멤버로서 자타 공인 ‘약학대학 동창 합창단 사(史)의 산증인’으로 불린다





기 위해서는 동창들의 협조와 지지 등 조직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휘자와 반주자 초빙 비용, 연습 장소 대여료, 단체복 맞춤 비용 등 운영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연습 장소는 피아노가 있는 곳이어야 하기에 적당한 곳을 물색하기가 만만찮다.

이날 자리에 모인 동창들은 총동창회 합창제를 앞둔 한두 달만이라도 총동창회에서 모교 내에 연습 장소를 저렴하게 대여해 주거나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 각 동창회 합창단이 활성화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데 입을 모았다.

합창단 활동이 주는 기쁨과 보람

합창단 활동은 동창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황경수 동창은 “모교 대강당 무대에서 노래하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럽다는 선배님들의 말씀에 큰 울림을 받는다”며 “특히 50주년 선배님들은 연습 때는 힘들어하시다가도 막상 무대에 오르면 놀라운 열정을 쏟아내시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정희 동창도 “학창 시절에는 기억나는 게 별로 없을 만큼 재미가 없었는데 오히려 졸업하고 나서 동창회를 통해 만난 선배님들의 따뜻한 교류가 큰 자산이 되었다”며 “다른 어떤 동창회보다 약학대학 동창회에서는 합창은 물론 다른 활동도 늘 같이할 만큼 유대관계가 좋아 든든하다”고 전했다.

장현숙 동창은 “같은 방향의 동창 다섯 명이 함께 타고 가는 차 안에서 파트별로 맞추어 보던 열정이 새롭다”고 회고하며 “최근에는 모두들 시간 내기가 여의치 않아 5월 동창의 날 행사에 임박해 모이다보니 연습량이 부족한 점이 아쉽지만, 꾸준히 합창단을 이어가는 후배들에게 감사한 마음에 대

강당에는 꼭 참석해 박수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미래를 향한 화합의 노래

함께한 동창들은 약학대학 동창 합창단 활동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합창은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소중한 경험이기엔 학창 시절 함께 공부했던 동창들과 다시 모여 바쁜 일상 속 여유와 따뜻한 공감대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경험할 것을 권했다.

약학대학 동창 합창단은 앞으로도 병원, 요양원, 지역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봉사와 자선무대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재학생과 졸업생이 함께하는 통합 무대도 계획 중이다. 이정희 동창에 따르면 “어린이집이나 요양원 등에서 봉사와 후원으로 나눔을 실천했던 경험이 있다”며 “다른 동창들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황미경 동창은 “음악은 세대를 초월한 소통의 매개체이기엔 약학대학 동창 합창단 활동을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교류의 장을 마련해 보다 끈끈한 동창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한다”며 “약학대학 동창회가 학문적 이미지에만 고정되지 않고 예술과 문화적 감성을 아우르는 품격 있는 동창 공동체라는 인식을 심어 동창회의 정체성을 더욱 빛내기를 바란다”고 덧붙인다.

반세기기를 이어온 약학대학 동창 합창단의 여정은 동창들의 우정과 헌신이 만들어낸 살아 있는 역사이다. 앞으로도 약학대학 동창 합창단이 선배들의 발자취 위에 후배들이 함께 노래하며 음악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전통을 더욱 굳건히 세워나가길 소망한다.

글·정진숙(행정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이화의료원 의료사회복지사
김현희 동창

위기 속 사람들에게 다리를 놓다



이화와의 긴 인연, 의료사회복지사의 길 위에서

이대서울병원 율타리 안에 자리잡은 ‘보구녀관(普救女館)’. 이화의료원의 시작과 역사가 담긴 곳이다. 한옥으로 지어진 아담하고 정갈한 이곳에서 의료사회복지사 김현희(사복 95, 이대목동병원 사회사업팀 파트장,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장) 동창을 만났다. 2025년 ‘올해의 이화인’으로 추대되기도 했던 김 동창은 1995년 이후 30여 년을 이화의료원 의료사회복지사로 병원 안팎에서 어려움에 처한 환자와 가족들 곁을 지켜왔다. “대학 3학년 때 이대목동병원에서 사회복지실습을 했고, 졸업할 때까지 자원봉사도 이어갔어요. 학교 다닐 때 장애인 캠프, 여성·아동·정신과 병동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다녔는데, 제 적성과 잘 맞다는 걸 알게 됐죠. 그 경험들이 바탕이 되어 졸업 후 바로 이대목동병원에서 의료사회복지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 곁을 지키는 또 다른 동반자, 의료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에 대해 김 동창은 이렇게 설명한다. “병원을 찾는 분 중에는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치료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암 환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분처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보호자가 없거나 노숙 중인 분, 미혼모, 1인 독거세대, 가족의 지지가 없는 청년 등 사회적 돌봄이 절실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의료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입니다.”

의료복지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바에 따르면, 복지 위기가구도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 예전처럼 노인 단독 세대뿐 아니라 40~50대 청장년층 독거가구 증가도 눈에 띄고, 돌봄이 필요한 20~30대 젊은 청년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사례인데, 췌장암으로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아오던 한 독신 남성이 한 달 넘게 외래에 오지

않는다고 주치의 선생님이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요청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 해당 지자체에 연락을 취했죠. 알고 보니 돌봐줄 가족이 없어서 한 달 넘게 방치되다 말기 상태에서 발견되었어요. 불행 중 다행으로 지역사회와 병원 의료복지의 연계로 요양병원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었죠.” 이 밖에도 시설에서 자라서 사회로 독립한 자립청년 중 질병을 가진 사람들, 특히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청년들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다.

김 동창이 소속된 이화의료원 사회사업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아주 다양하다. “환자들의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상담하고, 적절한 지원 계획과 방안을 찾는 것이 일차적이고, 퇴원 이후의 재활과 사회 복귀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원서비스와 연계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죠.” 이밖에도 장기이식, 호스피스 환자 지원, 만성질환자를 위한 정보 제공과 상담, 학대·폭력 피해자나 자살 시도자에 대한 위기 개입까지 폭넓고 다양하다.

한편, 김 동창은 앞으로 의료사회복지사의 활동 범위와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복지서비스 제공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극적으로 병원에 찾아온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지금은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과 의료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이런 변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김 동창은 이 법이 시행되면 지역사회와 병원 의료복지 서비스의 연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자체 사회복지사가 지역에서 식사도 못하고, 가족도 없이 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발견하게 되면 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팀에게 연락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현장의 특별한 기억들

30여 년의 여정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 중 기억에 남는 얼굴들이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20여 년 전 백혈병 환자로 인연을 맺어, 작년에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난 한 여성이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라고. “아주 형편이 어려운 소녀였어요. 집을 방문했는데 여기저기 곰팡이가 피어 있고, 환자에겐 너무 열악한 상태였죠. 당시 인기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던 <신동엽의 러브 하우스>에 저희가 이 소녀의 사연을 써서 보냈어요. 사연이 선정돼 집도 쾌적하게 고쳤고, 시청자들의 후원금으로 치료비 지원도 받았죠. 이후로도 계속 소식을 주고받았고, 다행히 잘 회복이 돼서 성인이 되고 결혼해서 딸도 낳았어요. 그러다 아이 낳고 얼마 안 돼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5년간 투병하다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딸이 올해 6세인데, ‘선생님, 선생님’ 부르면서 제 얼굴을 그려준 그림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절박하고 안타까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느끼는 보람도 크다고 했다. 최근 만난 카자흐스탄 출신 산모의 사례도 그중 하나다.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단체인 ‘김포 이웃살이’에서 연락을 주셨어요. 출산 2개월을 앞둔 이주노동자 산모인데, 태아의 심장 질환

이 발견돼서 긴박하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김 동창은 산모와 아기의 출산과 수술을 도울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했고, 그 결과 이대서울병원 내, 출산 전문병원인 ‘엄마아기병원’에서 안전하게 출산을 할 수 있었고, 아기도 서울대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았다. “건강보험이 없는 이주노동자 신분이라 수술비도 엄청난 부담이었는데, 다행히 병원과 우리 사회사업팀에서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이 밖에도 치료비 지원을 위해 노력했던 보람되고 가슴 따뜻했던 추억도 들려주었다. “20~30년 전만 해도 국가 차원의 지원이 많이 부족했어요. 의료비 지원을 받을 곳이 마땅치 않았죠. 그래서 예전에는 KBS의 <사랑의 리퀘스트>, MBC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신동엽의 러브 하우스> 같은 프로그램에 우리 의료사회복지사들이 환자들의 딱한 사연을 많이 써서 보냈어요. 그러면 방송국에서 병원으로 취제도 나오고, 시청자들이 보내준 후원금으로 치료비도 지원받곤 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국가의 의료비 지원이 크게 확대돼 지금은 예전처럼 사연을 보내는 일은 많이 줄었지만, 그 시절 많은 사람들이 전해준 따뜻한 마음은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방송에 사연이 소개되면 ARS로 1,000~2,000원씩 시청자들의 후원금이 모이는데 놀랍게도 3,000만 원, 5,000만 원의 큰돈이 금방 모여요. 따뜻한 손길이 많은 거죠.”

29년의 현장 경험, 협회장으로 이어지다

김 동창은 올해 초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제23대 협회장으로 취임했다. 올해로 창립 52년을 맞는 협회는 1,400여 명의 의료사회복지사가 소속된 전문단체이다. 김 동창은 1996년부터 29년간 협회 사무차장, 재정부장, 사무국장, 부회장, 수석부회장 등 다양한 역할을 통해 협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왔다. 협회장 취임 이후 지난 8개월 동안 김 동창은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의료사회복지사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애쓰고 있다. “협회장으로서 제가 가장 먼저 마음에 두고 있는 과제는 회원들 사이의 소통과 연대, 그리고 화합이에요. 세대마다 가치관과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협회 활동에 대한 참여 방식도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IMF 이후 계약직 세대가 늘어나면서 병원과 직업에 대한 소속감이 예전처럼 깊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 협회에 들어

2025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왼쪽에서 두 번째)



왔을 때 150명이었던 협회원 수가 지금은 1,400명으로 크게 늘었지만, 그중 절반 정도만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회원들의 참여와 연대가 꼭 필요합니다.”

또한 협회장으로서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 했다. “아직 의료사회복지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0년 국가자격 제도화 이후 전문가로 성장하려는 인력은 늘고 있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통합적 복지가 확대되면서 더 많은 의료사회복지사의 손길이 필요해지고 있어요.” 이를 위해 그는 활발한 대외활동과 기관 협력에 나서며, 최근 ‘중앙사회서비스원’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권익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과제 역시 중요한 숙제로 꼽았다. “의료사회복지사가 되려면 공식적으로 연간 1,000시간의 수련이 필요하지만, 이를 감당할 병원이 부족해 매년 배출되는 인력은 50명 남짓에 불과합니다.” 그는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맞춰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이 함께 제도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면, 임기 동안 실질적 해법을 찾고 싶다고 밝혔다.

‘보구녀관’의 의미를 되새김하며

김 동창은 인터뷰가 이루어진 ‘보구녀관’을 자주 찾는다고 했다. “이곳은 제가 아주 아끼고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이화의료원이 가진 오랜 역사와 그 안에 담긴 사명을 돌아볼 수 있는 곳 이죠.” ‘보구녀관’은 ‘여성을 널리 보호하고 구한다’는 뜻을 담아 고종 황제가 지어준 이름이다. 1887년, 이화학당이 세워진 다음 해에 스크랜튼 여사가 설립한 한국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이자 여성 의학교육 기관으로, 이화의료원의 뿌리이기도 하다. 전통과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2019년 이대서울병원 개원과 함께 한옥 형태의 기념관으로 복원되었다. “저는 ‘보구녀관’의 정신과 귀한 역사를 많이 알고 싶어요. 현장에 있다 보면, 아직도 병원 문턱이 높아 쉽게 발걸음을 못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병원에 데려다줄 가족이 없거나, 병원비가 무서워 업무를 못 내고 치료를 포기하는 거죠. 그 문턱을 낮춰주는 작은 창구가 되고 싶습니다. ‘보구녀관’의 최초의 취지가 먼저 말씀드린 카자흐스탄 산모처럼 소외되고, 어려운 여성들을 돕는 거였어요. 그걸 생각하면 이런 환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돕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정년까지 7년 정도 남았다는 김 동창은 “지난 30년이 정말 훌쩍 지나간 것 같아요. 지금껏 지루하거나 지겹다고 느낀 적도 거의 없고요. 평소에 농담처럼 ‘병원장 정신으로 일한다’는 마음으로, 지역사회에서 누가 도움을 요청하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다 됩니다’ 하고 씩씩하게 대답합니다. 짧은 말 한마디일 뿐이지만, 믿고 의지할 데가 있다는 게 그분들한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이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화의료원이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펼치는 의료기관으로 더 크게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글·이미란(행정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예수 누꾸시 (예수님과 함께하시길!)”



카니누와어 성경번역 작업을 함께하고 있는
조선향 동창과 남편 박요섭 선교사

선교사로 나가기까지

저희 부부가 1997년 한국을 떠나 밴쿠버에 도착했을 때는 또 다른 낯선 나라로 떠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곧바로 캐나다로 온 저희에게는 밴쿠버가 첫 살림을 시작한 곳이라 더 정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곧바로 IMF 사태가 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기는 했지만요.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날 즈음 남편인 박요섭 선교사는 CanIL(캐나다언어학연구소)에서 언어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각종 언어에 관심은 많았지만 다른 공부(수학과 신학)를 하느라 깊이 공부할 기회가 없었는데, CanIL에서 가르치는 과목들을 더 늦기 전에 꼭 공부하고 싶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공부가 끝날 즈음 남편 박요섭 선교사는 ‘성경번역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새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CanIL의 모든 스태프들은 성경번역 선교회인 ‘위클리프’ 소속 선교사들입니다. 교수진부터 행정지원 스태프까지 모두가 복음이 모든 종족에게 전해지길 간절히 소원하는 이들인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 지내며 공부하는 동안 박 선교사는 세상의 상황들을 보게 되고, 그들의 필요를 알게 되고, 열방을 마음에 품게 되고, 결국엔 이 일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번역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내인 저 조선향 선교사도 언어학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배워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번역은 대부분 오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부인 경우 함께 가서 공동 사역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입니다.

과학을 전공한 저에게 언어학은 참으로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온 후 일만 했기 때문에 영어로 공부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컸습니다. 바로 결정을 내릴 수 없었기에 박 선교사는 교회 사역을 계속 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 역시 CanIL에서 공부하면서 같은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6,900여 언어 종족 가운데 아직도 3,000개에 가까운 언어 종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듣지 못하고 있다는 데 가슴 아파하며 이 일에 헌신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후 위클리프 캐나다 멤버로 허입되는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저희 부부는 저희를 한국 땅을 떠나 밴쿠버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항상 상위권에 드는 밴쿠버는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지만,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곳에서의 삶이 단지 더 나은 삶의 추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디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복음을 위한 한인 디아스포라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 깨달음으로 그동안 위클리프 캐나다 서부 지역 한인 동원 사역자로 섬기면서 북미주 한인 디아스포라가 이 시대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성경번역 선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홍보하고, 필요한 인적, 영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며, 전반적인 선교 교육을 제공하는 사역을 담당해 왔습니다.

카니누와 성경번역 사역을 담당하며

이제 파푸아뉴기니의 작은 종족인 카니누와(Kaninuwa)를 도와 성경번역 사역을 담당하며 이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 누꾸시!” 카니누와어로 ‘예수님과 함께하시길’이라는 뜻의 축복 인사입니다. 저희의 짧은 소식을 전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카니누와 종족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어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는 그날까지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하는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천국의 모습(계 7:9)을 함께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하며, 이 일에 더 많은 주의 자녀가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글·조선향(생명 95)



기·도·해·주·세·요

1. 구약 파노라마 성경책이 출판, 봉헌되어 카니누와 종족 가정들에 배포되고 잘 사용되게 하소서.
 2.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자문위원 점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3. 카니누와어 번역팀이 계속해서 남아 있는 서신서를 번역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본문의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게 번역하게 하소서.
 4. 카니누와 공동체에 성경번역에 관한 관심이 새로 일어나고, 특별히 젊은이 중에 번역에 헌신하는 이들이 나오고 훈련받을 수 있게 하소서.
 5. 조선향, 박요섭 선교사와 잭, 레비, 사이몬, 케일로, 프리실라를 비롯한 카니누와어 번역자들이 늘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소서.
 6.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카니누와어 사역에 함께 하는 후원자/동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총 동 창 회 소 식

1

‘대바자회’와 ‘이화인의 밤’ 행사 논의 및 ‘총동창회’ 명칭 안내

2025년도 8월 정기임원회가 8월 21일(목) 오후 2시 30분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총 44명 중 참석 27명, 위임 12명, 불참 5명으로 성원이 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바자회’, ‘이화인의 밤’ 행사에 대한 논의와 함께 다양한 안전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9월 23일(화)에 개최되는 ‘대바자회’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경령(수학 84) 총무는 예년에 준비했던 앞치마 대신 이번에는 다회용 장바구니 안에 선캡, 안내문이 인쇄된 부채, 쓰레기봉투, 생수를 넣은 꾸러미를 각 부스당 하나씩 제공할 예정이고, 총동창회 물품으로는 백명란(5만 5,000원/1kg)을 준비하여 주문 링크를 발송하겠다고 안내했다. 또한 총동창회의 새로운 기념품으로 장우산(1만 3,000원)을 소개했다.

이승은(동양 89) 조형대 회장은 “당일에 분식(떡볶이)을 준비 중인데 참가 신청 학과 중에 다른 단과

대학과 먹거리 품목이 겹치는 경우, 어떻게 조율하고 가격 책정을 어떻게 하는지” 문의하였고,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장은 “같은 음식이라도 재료에 따라 개성이 다르므로 중복이 되어도 괜찮으며 메뉴와 가격은 단과대학 회장들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안내하였다. 최경임(물리 85) 자연대 회장은 “작년에 날씨가 매우 더웠고 행사 평가 시에도 더위와 관련한 건의 사항들이 많이 나왔는데 무더위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는지” 문의하였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건의를 반영해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자리를 피하여 부스를 설치하도록 총동창회 본부석 위치를 학생문화관 쪽으로 옮기게 되었다”며 회장들이 다양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매년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이화인의 밤’ 행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추석 연휴로 인해 정기임원회가 10월 16일(목)로 늦춰지므로 각 학과에서 티켓 판매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9월 정기임원회에서 ‘이화인의 밤’ 티켓을 배부할 예정”이라고 안내하며, 주변에 후원 물품을 제공할 사람이 있거나 공연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출연 게스트, 진행을 도울 외부 기획사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사무국에 연락하도록 부탁했다.

기타 안전으로,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내년 이화창립 140주년을 기념해 총동창회에서는 ‘동창의

8월 정기임원회



날' 합창제 참가 범위를 국내외 및 단과대학으로 넓히고 희망하는 팀은 모두 참가하는 '동창의 날' 전야제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내년에만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할 예정이지만 내용을 바꿀 수도 있으니 좋은 의견을 내주기를 부탁하며, 교내에 전야제와 식사가 함께 가능한 장소를 섭외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총동창회'와 '동창회'의 명칭에 대해 안내하며, 총동창회만이 '총동창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단과대학 및 학과 동창회는 '동창회'로 호칭함을 알렸다. 또한 졸업생은 '동문'이 아니라 '동창'이라고 호칭하므로 문서 작성시 반영하도록 안내하였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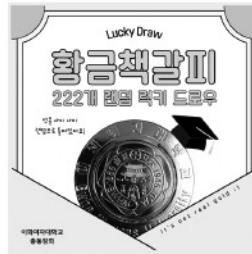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신입 동창들에게 기념품 전달

총동창회는 8월 29일(금) 오전 11시 대강당 아래 광장에서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신입 동창(2025년 8월 졸업)들을 대상으로 기념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총동창회에서는 '졸업생 선물 배부처' 안내 현수막을 내건 노란 천막을 설치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포스트잇과 (무작위로 증정된) 책갈피, 축하 카드, 총동창회 안내문을 담은 기념품 500세트를 전달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학위수여식이 끝난 뒤, 학위복을 착용하고 대강당을 나서는 신입 동창들을 대상으로 선물을 직접 전달하며 따뜻한 축하 인사를 건넸다. 한은주(특교 79) 부회장, 이수은(한음 02) 사업부장, 최지영(사학 89) 홍보부장, 이승은 조형대 회장이



신입 동창에게 기념품을 전달한 한은주 부회장(사진 오른쪽)

함께 참여해 신입 동창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이번 행사는 졸업생들에게 총동창회를 알리고 선후배와 연결을 이어주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신입 동창에게 전달한 기념품과 안내문

3

총동창회 회칙 개정을 위한 회칙개정위원회 보고 사항 발표

2025년 9월 11일(목) 오후 2시 30분,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2025년도 9월 정기임원회가 열렸다.

첫 번째 안건은 9월 23일(화) 열리는 '대바자회' 행사였다. 이승은 조형대 회장은 "시대 변화에 맞춰 바자회에 참여 방식이 다양해져, 직접 바자회에 부스를 내고 참여하는 학과도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거나, 온라인으로만 참여하는 곳도 있



9월 정기임원회에서 이명경 총동창회장

다”고 설명하고 “총동창회에서 통합 온라인 채널을 만들어 각 과가 판매 링크를 올리는 방식으로 하면, 어느 과에서 무슨 물건을 파는지 전체 물품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이승은 회장의 제안에 공감하며, 내년부터 공동 채널을 마련해 바자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안영호(중문 85) 인문대 회장은 인문대에서 바자회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온라인 판매 링크를 운영했던 경험을 공유하고, 소수 관리 인력의 엄청난 노고, 배송 및 고객 불만족 문제, 세금 발생, 실제로 많이 참여하지 않음 등 투입된 수고로움에 비해 가성비가 낮다는 애로사항을 알렸다.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두 의견을 참고해 내년에는 보다 구체화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두 번째 안건은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로, 김정령 총무는 유치부 25명, 초등부 25명 등 총 50명에게 본상을 시상하고, 참가자 전체에게도 풍성한 참가 선물을 준비했다고 안내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 ‘이화인의 밤’ 행사에 대해 논의하며, 이은영(컴공 85) 인공지능대 회장은 “인공지능대학은 네 개 학과 중 두 개 학과는 아직 졸업생이 나오지 않아 티켓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명경 총동창회장은 “형평성에 맞게 티켓을 배분하고자 했지만, 티켓값이 적지 않으므로

회장님들이 애써 주셔서 모두가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주시길” 당부했다. 공연 준비에 대해서는 외부 인사를 초빙하기보다는 모교 안의 재능을 가진 동창들을 무대에 세우고, 이 기회를 통해 모교의 전통을 알리고 ‘이화로운 내일’을 지향하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렸다.

기타 안건으로는 지난 5월 정기임원회에서 의결한 총동창회 회칙 개정을 위한 회칙개정위원회의 보고 사항을 들었다. 회칙개정위원회 위원장인 노정희(법대·법전원 86) 법대·법전원 회장은 지난 6월 12일(목) 첫 회의를 시작으로 ‘회칙개정위원회’가 총 4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결과, 일부 개정안에 합의하였다고 보고했다. 회장단 선임 절차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서 향후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한 사항을 중점 논의하였다고 밝힌 노정희 회장은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참석자들에게 비교 설명하였고,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토의하였다. 안영호 인문대 회장은 내년 3월 정기총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추후 임원회의에서 일정 수준의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에 대해 노정희 회장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3월 정기총회에서 인준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아름다운 이화인’ 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남상택 고문, 이명경 총동창회장, 한은주 부회장, 이경희(약학 88) 문화부장, 최지영 홍보부장, 모교의 대외협력처장과 모교 홍보실장 외에 임복희(행정 93) 사과대 회장, 윤금진(영교 80) 사범대 회장, 안영호 인문대 회장, 배지현(기독 00) 지역부장이 선정위원으로 추천되었다.

글·이영희(사학 88, 이화동창 편집위원)

모교소식

1

이화, AI 시대 첨단연구의 서막을 열다

2025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사업(G-LAMP) 공 학분야 선정

모교가 교육부의 '2025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 사업(Global-Learning & Academic research institution for Master's·PhD students, and Postdocs, 이하 'G-LAMP' 사업)에 선정되었다. 이번 선정으로 모교는 인간 중심 AI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융합 연구기관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G-LAMP 사업은 교육부가 연구소 관리·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중점테마연구소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기초과학 분야 공동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국정연구과제이다. 2025년 신규 선정평가 결과, 모교를 비롯한 총 6개 대학이 선정되었으며 모교는 신설된 '유형 II 공학 분야(수리·통계·인공지능)'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모교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연간 50억 원씩 총 250억

원을 지원받는다.

모교는 이번 사업 수행을 위해 지난 7월 '인간 중심 인공지능연구원(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Institute)'을 신설하고 컴퓨터공학과 박상수 교수를 원장으로 임명해 G-LAMP 사업을 선도할 공학 분야 중점테마연구소로 지정했다. 연구원은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탐구하고,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AI 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공학뿐만 아니라 인문과학, 사회과학, 예술 등 다양한 학문과의 융합 연구를 통해 AI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으로 모교는 G-LAMP 사업단(사업단장 수학과 이준엽 교수, 기획처장)을 중심으로 연구기관 지원·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분야 첨단 연구인프라 구축,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신진 연구자 양성에 주력한다.

특히, 인공지능과 다른 학문 분야의 국제·공동·융복합 연구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다양한 도메인 간 AI 융복합 응용 연구를 통해 인류 공동선을 실현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우수한 여학생들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문제해결 능력을 두루 갖춘 첨단 AI 분야 전문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모교는 G-LAMP 사업을 통해 수리·통계 기반의 AI 이론 체계를 정립하고, 초고신뢰 차세대 AI 원천 기술을 개발하며, 인간-환경 간 상호작용을 실시간으로 제어·대응하는 지능형 AI 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연구'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모교가 제시하는 미래 첨단연구의 방향성을 보여 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이향숙 총장은 "이번 G-LAMP 사업 선정은 이

화여대 발전계획인 ‘새 시대 새 이화’ 비전, 특히 ‘AI 시대를 대비하는 고등교육 대전환’의 서막을 알리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강조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우수한 세계 신진 연구자와 학문후속세대가 이화여대를 찾아와 AI 연구는 물론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데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모교는 1981년 국내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자계산학과 신설을 시작으로, 1996년 세계 최초 여자 공과대학 설립, 2022년 인공지능전공 및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신설, 2023년 독립된 단과대학으로서 ‘인공지능대학’ 신설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세계 최초·최고의 역사를 써가고 있다.

2

2025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S등급)’ 획득

자기설계 Module 교과목 도입, 부·복수전공제도 개선 등 전공 선택 유연성 확대 성과 인정받아

모교는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교육혁신 부문에서 2024년 성과평가에 이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2년 연속 획득하며 교육혁신 선도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이화여대는 인센티브 50억 6,300만 원을 포함해 총 101억 2,7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평가에서 △전공 선택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학사제도 유연화 △학생 주도 학습을 지원하는 자기설계 Module 교과목 운영 △진로·취업 연계

위한 전공별 진로지도 체계 구축 △AI 기반 지능형 학생지원시스템(E-벳) 운영 △미래형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양교육 및 기초 소양 인증제 추진 △교육혁신 교과목 개발 및 교원 참여 활성화 △학내 구성원 참여 중심의 교육혁신 소통 체계 구축 등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모교는 2009학년도 스크랜튼대학 자유전공 도입과 2018학년도 정시모집 계열별 통합선발 제도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며 전공 자율 선택제의 선도 모델을 구축하며 고도화하는 등 미래 사회 수요에 대응하는 융복합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학생의 진로 탐색과 전공 선택 유연화의 일환으로 부전공 및 복수전공 신청 시기를 1학년 2학기 앞당겨 학생들의 조기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이 직접 단기강좌를 조합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기설계 Module 교과목’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학생 주도 학습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전공 자율 선택생을 위한 겸임교원 연계 전공 탐색 지도, 선배 멘토링 등도 운영하고 있다.

진로·취업 지원 체계를 고도화한 성과도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 전공별 사회진출 데이터를 분석해 체계적인 진로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2025년에는 AI 기반 지능형 학생지원시스템 ‘E-벳’ 서비스를 오픈하여 맞춤형 진로·학사 지원을 실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모교는 기초 소양을 바탕으로 한 미래형 융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융복합 교양교육 체계 개발, 실천형 나눔 인성교육, 기초 소양 인증제 등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추진하며,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겸임교원을 활용한 전공 탐색 지도를 진행하고 교육혁신에 참여하는 교원 확대 방안 등을 마

련하여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대학 전체의 교육혁신 추진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 채널을 통해 소통 체계를 구축하며, 성과관리 조직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항숙 총장은 “이화여대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학사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포용적 혁신을 바탕으로 한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 3 —

‘THE 대학 영향력 평가’ 젠더평등 부문 6년 연속 국내 1위

‘기후변화 대응’과 ‘모두를 위한 에너지 보장’ 부문도 국내 8위

지속가능 사회 선도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아

모교가 영국 고등교육평가기관 THE(Times Higher Education)에서 발표한 ‘THE 대학 영향력 평가’의 ‘젠더평등’ 부문에서 6년 연속 국내 대학 1위를 차지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모두를 위한 에너지 보장’ 부문에서도 국내 8위를 차지해 지속가능 사회를 선도하는 교육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QS세계대학랭킹, ARWU와 함께 세계 3대 대학랭킹으로 꼽히는 THE 세계대학평가는 2019년 대학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과 사회공헌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해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Impact Rankings)를 신설했다. 영향력 평가란 대학들이

UN의 17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 대학의 연구업적, 사회적 평판 등을 살펴보는 기존 평가와 달리, 기후변화, 젠더평등,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위 등 ‘지속가능한 지구의 발전’을 위한 기여도를 측정하는 세계 최초의 평가로 주목받고 있다.

모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에 참가해 ‘젠더평등(Gender Equality)’ 부문에서 6년 연속 국내 대학 1위를 차지하며 명실상부 최고의 여성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젠더평등 부문은 대학의 젠더평등 연구실적, 여성 고위직 비율, 차별철폐정책 등을 측정하며 젠더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이해하는 척도가 된다.

또한 모교는 ‘기후변화 대응’과 ‘모두를 위한 에너지 보장’ 부문에서도 국내 8위를 차지했다. 특히 대학 최초로 UNEP-GCF에서 지원하는 태평양 도서 5개국 기후정보 조기경보 소통체계 개발 사업에 참여 중인 점이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건물 신축 또는 리모델링시 친환경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2017년에는 서울시 그린캠퍼스 에너지 절약 부문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모교는 교내 연구지원사업으로 기후에너지 시스템공학과, 환경공학과 및 건축도시시스템공학과를 선정해 해당 학과에 국내 최고 석학(허창희 석좌교수, 윤여민 석좌교수)을 영입했으며, 올해 기후환경융합연구원(CARES: Climate Adaptation,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Institute)을 설립해 기후위험을 선제적으로 예측·관리하고 산업·금융·국토 인프라 부문 회복력 강화를 위한 핵심 융합 기술 연구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현대미술가故 강서경 교수 유작 기증 받아

모교는 현대미술가 고(故) 강서경 교수(Suki Seokyeong Kang, 1977~2025)의 유족으로부터 갤러리에 위탁된 유작 일체를 기증받았다. 기증 대상은 고인이 작고하기 전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기증했던 일부를 포함한 400여 점의 작품이다. 이는 고인 및 유족의 뜻에 따라 대규모 작품군을 모교에 기증하여 교육과 연구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예술가의 유작이 대학 등 공공기관에 이처럼 대량으로 기증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고 강서경 교수는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영국 왕립예술대학(Royal College of Art)에서 회화를 전공한 뒤 모교 동양화전공 교수로 재직하며 실험적이고 공감각적인 작업으로 한국 현대미술계에서 독보적 위치를 구축했다. 접착제 없이 오직 실의 마찰로만 최소한의 접점을 유지하며 서로를 지탱하는 작품 〈그랜드마더타워(Grandmother Tower)〉로 2018년 세계 최대 아트페어인 스위스 아트바젤에서 '발로아즈 예술상'을 수상했으며, 2019년 베니스 비엔날레 본 전시에 초대돼 세계적 작가의 반열에 올랐다. 강 교수는 회화는 물론 조각, 설치, 영상, 퍼포먼스까지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전통과 동시대를 잇는 예술세계를 펼쳤으며, 조선시대 악보 '정간보' 기호에서 영감을 받은 〈정井(Jeong)〉 연작, 궁중무용 '춘앵무'의 무대에서 착안한 화문석 연작 〈자리(Mat)〉 연작, 회화 언어의 기본 단위로 설정한 〈모라(Mora)〉 연작 등 개인이 사회 속에서 차지하는 영역에 대한 섬세한 고찰을 담은 작품들로 주목 받았다.

2023년 암 투병 중에도 리움미술관에서 개최한 개인전 《버들 북 피꼬리》와 2024년 국제갤러리에서 열린 개인전 《마치 MARCH》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의 관계와 더불어 함께하는 풍경'으로 작품 세계를 확장하며 많은 이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2025년 3~5월 미국 덴버 현대미술관(MCA Denver)에서 열린 《산 시간 얼굴(Mountain—Hour—Face)》은 작가 생전에 개최된 마지막 해외 전시로 산, 자연, 풍경이라는 주제와 인간이 어떻게 서로 관계 맺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으며 관객들에게 특별한 몰입적 체험을 제공했다. (《이화 매거진》 '개인적 서사에서 공동체적 풍경으로 확장' 기사 참조)

강 교수가 지난 4월 향년 48세로 별세한 뒤 유족들은 고인의 뜻을 이어 모교이자 생전 몸담았던 모교에 유작 기증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기증 대상은 현재 갤러리에서 위탁 중인 작품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이며, 유족은 "기증 작품이 이화여대의 학문과 예술 교육 발전을 위한 자산으로 쓰이길 바란다"는 뜻을 학교에 전했다. 이에 따라 모교는 지난 6월 고인의 부친 강택림 대전대학교 명예교수와 모친 최정숙 여사, 오빠 강요한 선생, 배우자 공도일 선생,

故 강서경 동양화전공 교수 작품 기증식에서 유족과 함께한 학교 관계자들. (왼쪽부터)최윤정 대외협력처장, 박정수 연구·대외부총장, 이항숙 총장, 자녀 공현양, 배우자 공도일 선생, 모친 최정숙 여사, 부친 강택림 대전대 명예교수, 이혜미 교수



자녀 공헌 양 그리고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증서 서명 및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향숙 총장은 “고 강서경 교수는 예술을 통해 전통과 오늘을 잇고, 시대를 사유하는 깊은 울림을 남겼다”며 “그의 유작은 이화의 교육과 예술적 상상력에 영감을 주는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교는 이번 기증을 계기로 관련 위원회를 신설해 작품의 보관 및 활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기증작의 사회적 가치와 예술적 기여를 널리 조명할 수 있도록 향후 전시회와 심포지엄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 5 —

이화여대 앞 ‘스크랜튼길’ 명예도로 지정

모교는 서대문구와 함께 6월 20일(금) 오전 11시 이화여대 ECC에서 스크랜튼길 명예도로명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명예도로 지정은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아 한국 여성교육의 효시인 이화학당 설립자 메리 스크랜튼(Mary F. Scranton, 1832~1909) 선교사의 헌신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스크랜튼길은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 이화여대길 555m 전 구간, 15m 폭으로 조성됐다. 도로 시점과 종점, 중간 지점에는 명예도로명을 알리는 안내판과 도로명판이 설치된다.

서대문구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념행사에는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이향숙 총장과 이성현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구교경협의회 관계자, 이화여대 학생과 교직원, 지역 주민



이화여대 스크랜튼길 명예도로명 지정행사에서 이성현 서대문구청장, 장명수 이사장, 이향숙 총장(왼쪽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등 약 80명이 참석해 이화의 139년 여성 교육의 역사적 의미와 스크랜튼 선교사의 업적을 돌아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안선희 교목실장의 기도로 문을 연 이날 행사는 서대문구청 경과보고, 이성현 구청장의 기념사와 이향숙 총장의 축사 후 스크랜튼길 안내판 제막 순으로 진행됐다. 이향숙 총장은 축사를 통해 “스크랜튼 선교사는 ‘여성도 배워야 한다’는 시대를 앞선 신념으로 1886년 여성 교육의 첫걸음을 내디뎠고 이것이 이화여대의 출발점이 되었다”며 “오늘 명명되는 스크랜튼길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이화의 뿌리를 기리고, 우리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되새기는 상징적 공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화는 앞으로도 기독교 정신과 진선미의 이념을 바탕으로 여성 리더를 양성하며,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대학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대문구는 모교 앞 스크랜튼길 외에도 연세대학교 앞에 언더우드길, 감리교신학대학교 앞에 아펜젤러길을 명예도로로 각각 지정했으며, 관련 기념행사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명예도로 지정 기간은 올해 4월부터 2030년 4월까지로, 추후 연장 가능하다.

대학(원) 소식

사회과학대학

회장__임복희(행정 93)

동창회장단 정기 모임

8월 27일(수) 오후 5시, 서초동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 2층의 그리시노에서 사회과학대학 동창회장단 정기 모임이 있었다. 이날 모임에는 임복희 회장과 각 과 동창회장 김희정(정의 88)·권미경(커미부 88)·엄명숙(사회 83)·김혜영(사복 87)·라현정(심리 91)·최진경(경제 91)·이윤선(소비자학과 06) 동창 총 8명이 참석하였다. 직장에 다니는 동창들을 고려해 처음으로 저녁 시간에 이루어진 이번 모임에서는 참석자들 소개로 시작하여 각 과 동

동창회장단 정기모임에 참석한 사회과학대학 동창들



창회 소식 및 대바자회를 비롯한 2학기 총동창회 사업 관련 의견 등과 유난히 무더웠던 올 여름 나름의 피서법들을 나누며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음악대학

회장__정소희(작곡 89)

〈2025 이화뮤직페스티벌〉 개최

음악대학 동창회는 이화 창립 139주년과 음악대학 창립 100주년을 축하하며, 푸르른 6월의 이화의 밤을 밝힐 음악대학 동창들의 축제, 〈2025 이화뮤직페스티벌〉을 6월 25일(수)부터 27일(금)까지 음악대학 김영의홀에서 개최했다.

6월 25일(수)에는 각 과 음악회(1부)와 졸업 30주년을 맞이하는 동창들의 기념 음악회(2부)가 열렸다. 음악대학 피아노과, 관현악과, 성악과, 작곡과, 한국음악과 동창들이 감동적이고 멋진 무대를 선보였다.

6월 26일(목)에는 80여 명의 피아노과 동창들이 출연한 그랜드 콘서트로 진행되었다. 음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전국에서 80여 명의 피아노과 동창들이 모여 네 대의 피아노를 통한 멋진 앙상블로 이화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참신한 기획과 멋진 연주, 그리고 퍼포먼스로 공연 내내 관객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했다.

〈2025 이화뮤직페스티벌〉의 피날레를 장식한 6월 27일(금)에는 〈감사 찬양, 100년의 희망〉이란 타이틀로 100년 동안 이화여대 음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종교음악과 주최로 가졌다. 이화그레이스콰이어(지휘 이지복)와 멋진 오르간 연주 그리고 연주자와 관객이



2025 이화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한 음악대학 동창회

다 함께 부르는 <Amazing Grace(감사의 찬양)>로 대미를 장식하였다.

<2025 이화뮤직페스티벌>은 음악대학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동창 모두 한마음이 되어 준비한 감동적인 축제였다.

경영대학

회장_김지훈(경영 90)

30기 동창들, 모교 찾아 끈끈한 우정 확인

6월 12일(목) 오후 6시 30분, 경영대학 30기(93학번) 홈커밍데이 행사를 가졌다. 매년 ECC 이삼봉홀에서 열렸던 행사와 달리 올해는 최근 리모델링을 마친 신세계관 1층 경영학과 창립 60주년 기념홀에서 개최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는 기 대표인 이세련(경영 98)·이은비

홈커밍 행사에 참석한 경영대학 동창들



(경영 97) 동창을 포함한 30기 동창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진희·홍부길·박재홍·김성국·강혜련(경영 80) 명예교수와 박성연(경영 88) 학사 부총장 등 여러 귀빈들이 자리를 빛냈다. 김봉진 학장과 현직 교수, 선후배 동창 및 재학생 대표들도 참석해 이들을 따뜻하게 환영했다.

이날 행사에선 30기 현정혜(경영 96, 한국산업은행 서부산지점 기업금융1팀 팀장) 동창이 '2025 자랑스러운 이화경영인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30기 동창들은 900만 원을 경영대학 발전기금으로 기탁했다.

음악대학 창립 100주년 기념 오페라 공연에서 주연을 맡았던 김인영(성악 24)·홍세아(성악 24) 동창과 우승지(피아노 20) 동창이 축하 공연을 해주었고, 내년 홈커밍데이의 주인공인 31기(94학번) 후배들이 30기 선배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30기 동창들의 소감과 감사 인사를 들으며 참석자들은 이 경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새삼 깊이 느꼈다. 공식 행사가 끝난 후에도 자리에 남은 30기 동창들은 오랜 만에 만난 기쁨을 만끽하며 진한 우정을 나누었다.

의과대학

회장_피상순(의학 84)

모교 사랑과 끈끈한 유대감을 나누다

의과대학 동창회는 최근 다채로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모교에 대한 깊은 사랑과 동창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확인했다.

5월 31일(토), 제44회 졸업 30주년 기념 모교 방문의 날 행사가 의과대학 101호 강의실에서 열렸

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동창 13명은 새롭게 변화한 모교 건물과 의료원의 위상에 감탄하였으며, 7,000만 원의 발전 기금을 전달하였다. 6월 2일(월)에 열린 제24회 졸업 50주년 기념행사에는 19명의 동창이 참석하였으며 그중에는 먼 미국에서 찾아와 자리를 빛낸 동창도 있었다. 동창들은 모교와 이대서울병원의 발전된 모습을 보며 크게 기뻐하고, 1억 6,400만 원의 기부금을 모교에 전달했다.

학술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6월 19일(목) ECC 컨퍼런스홀에서 개교 8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138년의 빛, 이화 의학 교육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화 의학 교육에 헌신했던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현재와 미래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7월 5일(토)에는 ECC에서 전국 각지의 지회장들이 모여 교류를 다졌고, 안전 전문가 한문철 씨의 초청 강연 〈Show Yourself〉를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친목 활동을 통해 동창 간 우애도 돈독히 했다. 6월 23일(월) 29회 이종민(의학 80) 동창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시간을 가졌다. 평생을 이웃과 함께하며 살아온 이종민 동창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모두가 따뜻한 울림과 감동을 받았다.

6월 24일(화)에는 안산 제일CC에서 골프대회를

열어 자연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6월 27일(금) 광림아트센터 장천홀에서 열린 '이향합창제'에서 이화의대 동창 합창단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이며 동창들의 화합을 보여주었다.

사회에 기여하는 봉사 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6월 26일(목), 충남 고사리마을 옥현 마을회관을 찾아 제4회 배꽃 나눔 실천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다양한 진료와 상담으로 주민들의 큰 환영을 받았다.

동창들의 건강을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8월 8일(금), 이화웰리스검진센터와 MOU를 체결하여 바쁜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동창들이 정기 검진을 놓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마련했다. 또한 이화의대 이포사 모임에서는 8월 17일(일)에 경기도 시흥 관곡지로 출사를 떠나 아름다운 연꽃을 촬영하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처럼 이화의대 동창회는 모교에 대한 깊은 사랑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동창들이 함께 성장하고 교류하는 공동체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간호대학

회장_정승은(간호 86)

남가주 동창회 방문

7월 19일(토) 12시, 정승은 회장과 강윤희(간호 94) 간호대학 학장이 간호대학 남가주 동창회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에는 안영숙(간호 75) 남가주 동창회장을 비롯하여 간호대학 1회부터 40회 졸업생까지 남가주 내 간호대학 동창 30여 명이 참석하여 친목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 당일 간호대학 동창회의 소식, 간호대학의 현황과 발전상을 안내하였고, 이화 웨스트 캠퍼스(Ewha West

전국 각지의 지회장들이 모여 교류한 의과대학 동창회





간호대학동창회장과 학장의방문을 환영한 남가주 동창회

Campus, EWC) 간호과학관 건축기금 모금에 관해 안내하였다. 남가주 동창회는 간호대학 동창회와 간호대학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했으며, 이에 간호대학 동창회와 간호대학은 남가주 동창들의 뜨거운 환영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8월 6일(수) 오후 1시, 재학생 대상 간호대학 동창회 설명회를 갖고, 간호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동창회 소개 및 신입 회원 가입 절차를 안내하였다. 간호대학 동창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정승은 회장, 김숙현(간호 90, 이대목동병원 간호부원장) 부회장, 구종모(간호 91, 이대서울병원 간호부원장) 부회장, 신수진(간호 96, 간호대학 부학장) 부회장, 김민정(간호 11, 간호대학 교수) 서기와 간호대학 4학년 107명을 포함해 총 11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동창회에서 마련한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예비 동창을 환영하고 소속감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약학대학

회장_황미경(약학 86)

풍성한 소식이 가득한 회보 발간

6월 24일(화) 동창회 회장단, 임원들 28명이 정

기임원회의를 진행하였다. 약학대학 동창회는 매년 6월 임원회의를 통해 야외로 나가 임원들이 단합하고 수고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왔다. 올해는 경기도 안성 대덕면에 있는 카페 '힐가텐'을 전체 대여하여, 안성 금광 호수의 탁트인 풍광을 감상하고, 카페 주인이 직접 끓여 준 안성 국밥으로 식사한 후에 다과를 나누며 임원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 후에는 카페 옆의 '갤러리 319'로 자리를 옮겨 갤러리 대표의 도슨트와 함께 국내외 유명 현대 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였다. 이후에는 야외에 설치된 조각과 설치물을 감상하고 산책하면서 힐링의 시간을 가지고 귀경하였다.

약학대학 동창회는 매년 약학대학 소식과 동창회의 회무, 동창들의 근황과 기고들을 묶어 소식지를 발간, 동창 4,000여 명에게 발송하고 있다. 올해도 임원들은 동창들이 기고한 소식들을 모집하고 편집하면서 6,7월을 보냈으며, 회장과 부회장은 임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한옥 독채를 하루 임대하여 함께 모여 수정·편집하면서 단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소식지에는 약대 장학금 3억 원을 기부한 황민자(약학 64) 동창의 인터뷰를 실었으며, '빛나는 이화인' 상을 받은 강유순(약학 69) 동창의 수상 소식도 전했다. 또한 각 기수별 동창들의 행사와 여행 등 다채롭고 화기애애한 소식을 가득 담았다.

정기임원회의를 진행한 약학대학 동창회



과(학부)소식

불어불문학과

회장 __ 이화원(81)

연례 총회에서 신임 회장 취임

4월 16일(수) 12시 모교 이삼봉홀에서 연례 총회를 가졌다. 총회에는 1기(1961년 졸업)에서 64기(2024년 졸업)에 이르는 총 86명의 동창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 21기 이화원 동창이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여 앞으로 2년간 임기를 맡을 예정이다. 지난 2023년 4월부터 회장직을 수행한 송기정(80) 동창에게 감사드린다.

이날 총회를 맞아 대외협력처에서는 1,000만 원

의 장학금을 기부한 강미영(72) 동창에게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15기 동창회(1975년 졸업)가 한혜선(학부 3학년) 재학생에게 1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불어불문학과 동창회는 각 기별 2명 내외로 구성되는 간사회 정례 모임을 짝수 달 세 번째 수요일 12시에 가지고 있다. 2025년-2026년에는 총 70명의 간사가 활동할 예정이다. 간사회 6월 정례 모임은 총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18일(수) 12시 한일관 압구정점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대외협력처를 통하여 5,000만 원의 장학금을 기부한 윤용범(64) 동창에게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신지운(02 입학) 동창의 '향수 이야기' 특강이 진행되었다. 또한 8월 20일(수) 12시 한일관 압구정점에서 총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 간사회 정례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박지희(91) 동창의 '영화 이야기' 특강이 진행되었다.

독어독문학과

회장 __ 박지나(90)

기 간사 모임에서 하반기 행사 논의

격월로 간사회 모임을 갖고 있는 불어불문학과 동창회



기 간사 모임에 참석한 독어독문학과 동창들



6월 26일(목) 한일관에서 독어독문학과 동창회 간사 모임이 있었다. 올해 하반기에 있을 동창회 트래킹 행사와 골프 행사 및 총동창회 바자회 준비 과정에 대한 의견도 나누고, 지난번 간사회에서 의견을 나눈 동창회 회칙 개정에 관한 세부적 사항들도 조율하였다.

정치외교학과

회장 __ 김희정(88)

‘선후배가 함께하는 걸쭉대회’ 개최

5월 15일(목) 오전 10시 여의도공원에서 ‘선후배가 함께하는 걸쭉대회’를 개최했다. 김희정 회장은 “선후배 간의 스킨십 강화와 건강 증진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 행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가한 이춘호(69) 동창은 작년에 친구들과 벚꽃을 보며 산책하던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나 어젯밤 설레는 마음으로 이 행사를 기다렸다고 하며 “정외과 후배님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공유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한 시간에 걸쳐 걷기와 뛰기를 마친 동창들은 인근 국민일보 빌딩 맥원 중식당에서 담소를 나누며 선후배 간 우의를 다졌다.

선후배가 함께하는 걸쭉대회에 참석한 정치외교학과 동창들



문헌정보학과

회장 __ 김노미(88)

QS 세계대학평가 100위권 진입 쾌거

5월 24일(토) 모교 진선미관 내 자연스름에서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를 가졌다. 이 행사에는 문헌정보학과 교수진을 비롯하여 65학번부터 18학번까지 약 50여 명의 동창이 참석하였으며, 25명의 신입 동창을 대표하여 박수혜(25) 동창이 자리를 함께하였다.

정기총회는 회계 결산 보고 및 예산안 심의를 주요 안건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정진(14) 문헌정보학과 학과장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 계열 내에서 문헌정보학과가 유일하게 QS 세계대학평가 100위권에 진입하는 쾌거를 달성하였음을 보고하여 참석자 전원의 축하와 격려를 받았다. 이는 문헌정보학과 학과 학술적 우수성과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선배 기수부터 시작된 기수별 자기소개 및 근황 공유 시간을 통해 참석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문헌정보학과 소속 동창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학과의 지속적인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 위한 중요한 교류의 장이 되었다.

기수별로 일어나 인사를 나누고 있는 문헌정보학과 동창들



본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한 임원진과 문헌정보학과 동창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 간사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사회학과

회장 __ 엄명숙(83)

사회학과 두 동창, '제23회 자랑스러운 이화인' 선정

5월 30일(금) 모교에서 열린 이화여대 창립 139주년 기념식에서 제23회 '자랑스러운 이화인'으로 이영희(62)·이덕희(63) 동창이 나란히 선정되는 뜻 깊은 경사가 있었다.

이영희 동창은 국가무형문화재 가야금산조 및 병창보유자로서 60여 년간 전통 국악의 보존과 확산에 헌신해 왔으며, 이덕희 동창은 하와이 한인 이민사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발굴·조명하며 독립운동사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

이 두 동창의 오랜 헌신과 삶에 깊은 존경을 담아 많은 후배들이 함께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덕희 동창은 하와이 이주민이 어떻게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

가를 생활사적 관점에서 매우 흥미롭게 강의하여, 함께한 후배들에게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선사해 주었다.

물리학과

회장 __ 김수미(90)

창립 70주년 행사 보고회 및 기 간사 회의

6월 20일(금) 자연대학 총회 후 더식탁 하늬솔집에서 물리학과 창립 70주년 행사 보고회 및 정기 기 간사 회의가 있었다. 회의에서는 상반기 물리학과 행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일정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곶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김정자(68) 동창과 안응학(70) 동창, 남상택(74) 동창이 참석하여 임원진을 격려해 주었고, 선후배 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돈독한 시간을 가졌다.

8월 21일(목) 1시 대학로 몽브띠끌라에서 물리학과 70주년 행사 평가 및 하반기 사업을 위한 임원진 정기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9월 23일(화)로 예정된 총동창회 바자회에 참여할 물리학과 메뉴 선정과 그에 따른 준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덕희 동창과 간담회를 가진 사회학과 동창들



기 간사 회의에 참석한 물리학과 동창들



동창 멘토와 함께한 제약·바이오 현장 멘토링

생명과학과의 산업 연계 멘토링 프로그램 ‘이화 바이오브릿지(Ewha Bio Bridge, EBB)’가 7월 23 일(수) 서울 송파 한미약품 본사와 문정지구 한스 바이오메드에서 기업 탐방과 현직자 멘토링을 진행했다. 생명과학과 재학생과 동창 멘토들이 함께 한 이번 프로그램은 제약·의료기기·CRO·벤처 등 현장을 두루 경험하며 직무와 커리어 경로를 체감 하는 자리였다. 심현보 학과장과 권미정(94) 교수, 김태수 홍보위원장, 원용진 학사위원장도 동행해 현장에서 학생들을 격려했다.

EBB는 생명과학과 졸업생(멘토)과 재학생(멘티)이 학업·진로·커리어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 하며 성장과 연결을 이어가는 학과·동창 협력 프로그램이다. 2022년 1기로 출발해 현재 4기까지 이어 지고 있으며, 기수별로 약 40명 내외가 멘토·멘티 로 짝을 이뤄 기업 탐방, 직무 설명회, 그룹/1:1 멘 토링, 네트워킹을 정기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동창 네트워크와 학과의 협업으로 꾸러지고, 동창회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다.

오전 일정은 한미약품 본사에서 시작됐다. 참가 자들은 임성기 기념관을 둘러보며 회사의 역사와 대표 제품, 글로벌 기술수출 사례를 이해했고, 이 어진 C&D(Connect & Development) 전략팀 세션 을 통해 기술도입 검토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실제 업무 흐름을 들었다. 한미약품 멘토들은 전공과 현 업의 완벽한 일치보다 논문 해석력과 이를 자기 언 어로 설명하는 능력, 커뮤니케이션과 영어 실무력 같은 문제 해결 역량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석사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나만의 강점을 분



기업 탐방 프로그램으로 한미약품 본사를 찾은 참석자들

명히 하라”는 현실적인 팁도 더해졌다. 한미약품의 사내 직무 이동 제도 등 유연한 커리어 경로 소개 는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오후에는 한스바이오메드로 이동해 조직재생·의료기기 분야의 현장을 가까이에서 확인했다. 연구개발(R&D)뿐 아니라 품질관리(QC)·품질보증 (QA)·인허가(RA)·생산·해외영업 등 다양한 직무 구조가 소개됐고, 의료기기 개발에는 실험 역량에 더해 의료기기법과 인허가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 는 점이 강조됐다.

이어 관계사 에이템즈(주) 연구소장이 태아 연골 유래 세포치료제 파이프라인과 벤처의 BD·라이선 스 관리 경험을 공유하며, 제품이 시장에 닿기까지 는 “끝까지 책임지는 실행력과 부서 간 하모니”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비임상 CRO 바이 오톡스텍의 멘토는 독성시험의 윤리·규제 기준과 기록·추적성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실험·동물관리 외에도 마케팅, 프로젝트 매니징, 조직병리 등 학 사 단계에서도 진입 가능한 직무 스펙트럼을 소개 했다. 학생들은 “연구직 중심으로 좁게 보던 진로 가 사업개발, 해외영업, RA, QC/QA, 생산, CRO 까지 넓어졌다”며 현장 감수성을 얻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생명과학과 동창 멘토단의 참 여로 완성도를 높였다. 멘토로는 ▲황유경(89, 주

식회사CTX 대표이사), ▲김현정(03, 종근당 신약 전략기획팀 부장), ▲권예지(11, JW홀딩스 R&BD 전략실 책임매니저), ▲최인경(12, 타날리시스 대표이사), ▲황유선(15, LG화학 생명과학본부 책임연구원), ▲이다예(15, 이화여대 박사후 연구원) 동창이 참석해 전공의 확장 가능성과 커리어 설계를 구체적으로 조언했다.

학과는 앞으로도 캠퍼스·산업·동창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이어 가겠다고 밝히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후배들을 위해 함께해 준 선배 멘토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컴퓨터공학과

회장 __ 심인숙(88)

졸업 40주년 기념 행사

졸업 4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 동창들(위)과 기념품 비누(아래)



컴퓨터공학과 1기 졸업생들(대표 이미애(85))이 졸업 4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5월 27일(화) 파크 하얏트 서울에서 행사를 가졌다. 사진으로 보는 40년, 퀴즈 등 다채로운 행사와 더불어 심인숙 회장에게 소정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피아노과

회장 __ 문주원(88)

김영의홀에 울려 퍼진 100년 전통의 선율

6월 26일(목) 피아노과의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음악회가 모교 김영의홀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번 음악회는 피아노 4대를 중심으로, 한 팀당 8명씩 총 10개 팀, 약 80명의 전 현직 교수진 및 동창 피아니스트(66학번부터 16학번까지)가 참여한 대규모 협연 무대로 꾸며졌다. 다채로운 클래식 명곡은 물론, 이화의 창의성을 반영한 국악과의 협연 무대도 함께 펼쳐져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연주자들과 객석에 있던 동창들의 교가 제창으로 따뜻하고 감동적인 연주회를 마무리했다.

또한 고 윤보희(음악 43) 교수의 제자들은 피아노과를 위해 기금 1,000만 원을 기부하였다. 세대

피아노과의 10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가 개최되었다





80명의 피아니스트가 참여한 대규모 합연 무대를 선보인 피아노과 동창들

를 아우르는 연주자들이 펼친 이번 음악회는 단순한 기념 공연을 넘어, 이화여대 음악대학의 100년 역사와 정체성, 예술적 전통을 되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의 100년을 함께 여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조소과

회장__ 김 연(91)

운영위원회 및 임원회의 갖고 행사 검토

2025년 제3차 조소과 운영위원회가 7월 16일(수) 인사동 안동국사에서 개최되었다. 위원회에는 이정자(66)·이종희(71)·심부섭(76)·고혜숙(77)·임영란(78)·최은경(79)·이선화(81)·김 연(91)·김순임(02)·도정윤(24) 동창이 참석하였다. 조소과 동창회는 2021년부터 ESAarts Award를 통해 재학생과 동창 작가들의 전시 및 창작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다. 2026년에는 ESAarts Award의 일환으로 <2026 ISF 국제조각페스타>에 이화조각회 부스를 마련하여 동창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총 6명의 동창(오수연(98), 이말용(98), 손혜경(03), 조재영(03), 김다슬(15), 김보경(19))이 참여작가로 선정되었다.

7월 26일(토) 제3차 임원회의 및 2026 ESAarts Award <ISF 국제조각페스타> 참여 작가 회의가 대학로 예술가의 집(세미나 3실)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동창회 임원들과 선정 작가들이 함께 참석하여 조각페스타 부스 구성과 공간 배치, 실무 분담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2026년 3월 개최 예정인 제41회 이화조각회 정기전 준비, 동창회 주소록 재정비 및 단체 대화방 운영, 동창의 날 행사, 가을 야유회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되었다(참석자: 김 연, 이지은(97), 오수연, 이말용, 윤수진(01), 김순임, 김다슬, 김보경, 도정윤). 임원들의 업무 분담과 세부 사항은 8월 2일(토)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제4차 임원회의에서 추가로 검토되었다(참석자: 김 연, 이윤정(91), 이은이(92), 김양선(94), 이지은, 윤수진, 김순임, 이수원(12), 박정향(15), 도정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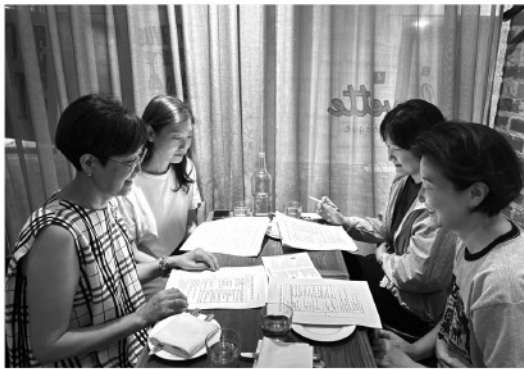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조소과 동창들

섬유예술과

회장__ 이상영(94)

바자회 및 예미 동창전 준비 회의

7월 16일(목) 오전 11시 부메트 서울에서 총동창회 바자회 및 동문전인 예미전 준비를 위해 섬유예



임원회의에 참석한 섬유예술과 동창들

술과 임원진들이 모여 회의를 하였다(참석자: 이상영, 이해원(96), 신지혜(02), 조정민(08)). 상반기 각 부 활동 보고 및 총평과 중간 회계 보고가 있었다. 하반기 운영 계획 중 9월 바자회 준비를 위한 본격적인 토의가 있었다. 각자 바자회에 필요한 상품을 컨택하고, 상품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2026년 9월에 전시 예정인 제10회 예미전은 예미인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임원진들이 섬유예술과 동창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회의를 마치고 임원진 모두 매듭장 김혜순(66) 동창의 전시를 관람하였다.

도예과

회장__정호정(90)

도림회 제45회 정기전 개최

7월 1일(화)부터 5일(토)까지 이화아트센터에서 도자예술전공 동창회 '도림회'의 제45회 정기 전시회 '적시(適時)'가 열렸다. 이번 전시는 졸업생부터 조정현(생미 63)·유혜자(생미 66)·김수정(생미 66) 명예교수의 작품까지 한자리에 모여 세대를 아우르는 도자예술의 전통과 현재를 보여 주었다. 매년



도림회 정기전 '적시'의 팬들

동창들의 활발한 참여로 개최되는 도림전은 올해도 다양한 작품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초등교육과

회장__민홍자(89)

초등교육과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초등교육과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지난 7월 12일(토) 모교 ECC 이삼봉홀에서 기념행사를 성대히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난 80년간 이어온 초등교육과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미래 교육의 비전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되었다.

1부 공식행사는 옥현진 학과장의 개회사와 안선희(기독 88) 교목실장의 말씀과 기도를 시작으로, 민홍자 회장의 환영사, 이향숙 신임 총장의 축사와 발전기금 전달식, 그리고 유터피 윈즈의 축하 공연으로 이어졌다. 격조 높은 순서들 속에서 학과의 전통과 성과를 되새기며, 앞으로의 발전을 향한 의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점심 식사 후 이어진 2부 '어울림제'에서는 원로 교수님들과 역대 동창회장 대표, 배려회와 이초회의 회장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축사를 전했다. 이어 '그 땀 그랬지'라는 제목으로 강정화(90) 동창의



창립 80주년 기념행사를 가진 초등교육과 동창회

지난 시절을 회상하는 발표와 동창회 제작 영상을 통해 동창회의 지난 역사를 함께 추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함께 '나에게 초등교육은 ()다'라는 주제로 소통의 시간과 더불어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화합의 축제가 되었다.

이번 80주년 기념행사는 단순한 과거의 회고를 넘어, 다가올 90주년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으로 그 의미를 더하였다. 동창들은 이화초등교육과의 전통과 자긍심을 계승하며, 교육 현장에서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창립 80주년을 맞은 이화여자대

학교 초등교육과는 '이화정신'과 '교육 사랑'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사회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발전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가정관리학과

회장__이향진(87)

오찬 모임을 갖고 다양한 화제로 정담 나눠

6월 25일(수) 도원스타일 압구정점에서 이가희 펀드 오찬 모임을 갖고, 조원숙(72)·이정수(73)·임정희(79)·김상희(81)·백종화(86)·백선영(87)·이향진(87)·김혜련(91)·안현경(92)·황현주(92) 동창이 참석하였다. 동창들은 각자의 근황과 옛이야기, 이화학당과 학교 소식, 가정대와 가정관리과 복원 문제, 가정관리학과 60주년 행사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점심 식사 후 카페 몽지로 자리를 옮겨 빙수로 뒤 풀이 시간을 가졌다.

오찬 모임에 참석한 가정관리학과 동창들



《이화동창》을 받으시는 동창 여러분 중 주소가 변경된 분은
총동창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3277-3386~7 / E-mail : ewhaalum@ewha.ac.kr



지 회 소 식

남가주(LA) 지회

회장 __ 조혜진(장미 89)

한여름밤의 콘서트

6월 1일(일) 제16회 남가주 동문합창단 연주가 '꽃 피는 날'이라는 주제로 Orange County에 위치한 Biola University Crowell Lansing Auditorium에서 열려, 약 300여 명의 관중 앞에서 봄 노래 중심의 다양한 레퍼토리로 아름다운 합창을 선보였다. 특히 지난 20여 년간 합창단에 헌신해 온 송정현(교육 57)·송은섭 (정의 57) 동창의 퇴임을 헌정하는 시간도 있어 관람객 모두에게 이화 합창단의 역사

를 돌이켜보고 선후배 간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6월 23일(월)은 남가주 지회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 총장배 골프 대회가 Buena Park에 위치한 Los Coyotes Country Club에서 열렸다. 올해에도 120여 명의 동창 및 지인들이 참가하여 모처럼의 선선한 날씨 아래 즐겁게 골프 라운딩과 골프를 마쳤다. 이후 클럽 하우스에서 저녁 식사 및 여흥을 즐기고, 푸짐하게 마련한 선물들을 한 아름 안고 가는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날 마련된 기금들은 동창회 장학금으로 기부되었다.

8월 5일(화)에는 역시 남가주 지회의 연례 행사의 하나인 할리우드 볼 관람을 하였다. 올해는 175명의 신청자와 함께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두 곡(〈Piano Concerto for the Left hand〉, 〈Piano Concerto in G〉)을 연주하는 것을 감상하였다. 동창회에서 준비한 맛있는 도시락과 각자 준비해온 음료 및 와인과 함께 콘서트를 즐기는 잊지 못할 한여름밤이었다.

뉴욕 지회

회장 __ 김영신(독문 88)

초복 맞이 '몸보신 Day' 행사

초복을 앞둔 7월 15일(화), 동창회 주최로 뉴저지의 한 식당에서 시니어 선배들을 모시고 정성스러운 '몸보신 Day' 행사를 가졌다. 이해경(음악 50)·장혜원(약학 50) 동창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들에게,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따뜻한 음식을 대접했다. 식사를 나누며 서로의 근황을 전하고 웃음꽃이 피는 가운데, 환하게 웃는 선배들의 모습에서 큰 보람과 감사함을 느낄 수

남가주 지회의 가장 큰 행사인 총장배 골프 대회



있었다.

이번 행사는 선배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동창회 가족 간의 끈끈한 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7월 27일(일)에는 2030세대 동창들이 'GLOWING GREEN, GLOW TOGETHER' 라는 주제로 여름 브런치 행사를 가졌다. 새로 만난 동창들,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아직은 쉽지 않은 뉴욕에서의 생활에 활력도 많이 얻고 이화 올타리의 따뜻함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초복을 맞아 몸보신 음식으로 동창들의 건강을 살핀 뉴욕 지회

대구 지회

회장 __ 권애실(불문 82)

한국전쟁 참전용사 유공자 위문행사

6월 30일(월) 오후 2시, 대구 지회 회장단과 서은주(생미 73) 동창은 칠곡군 보훈회관을 방문하여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칠곡군에는 한국전쟁 중 가장 치열하고 중요한 전투였던 다부동 전투의 산증인 약 30여 명이 생존해 계신다. 이번 행사에는 유공자 협회 회원 20명과 유족 5명, 보훈회장과 사무국장이 참석하였으며, 칠곡군수를 대신해 국장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찾아 위문품을 전달한 대구 지회

이하 보훈 담당 공무원이 함께하였다.

참석한 유공자들은 평균 연령 95세 전후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단정한 제복 차림으로 정정하게 참석하셔서 뵙는 것만으로도 깊은 감동을 주었다. 국민의례에 꽃꽂한 거수경례는 가슴이 뭉클하였다.

회장단은 영양죽과 톨케이크를 준비하였고, 서은주 동창이 기증한 인견 내의도 함께 전달하였다. 유공자들은 폭염의 날씨 속에서도 따뜻하게 맞이해주었고, 감사와 환영의 인사와 함께 내년에도 꼭 다시 찾아와 달라는 당부를 남겼다. 매년 돌아가시는 분들로 유공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상황이라 애뜻함이 느껴졌다.

이날 행사에는 남성희(커미부 78, 대구보건대학교 총장) 동창도 참석하여 격려하였고, 서은주 동창은 한국전쟁에 얹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또한 수석부회장의 시 낭송이 더해져 행사의 분위기를 풍성하게 해주었다.

비록 우리가 준비한 위문품은 소박했지만, 유공자분의 희생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매우 보람된 시간이었다. 또한 기대 이상으로 반겨 주고 기뻐하심에 큰 감명을 받았다. 앞으로도 증지를 모아 의미 있는 봉사 활동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멜버른 지회

회장 _ 윤숙경(간호 76)

새 동창을 환영하며 번개 모임

겨울이라고는 하지만 유난히 따스하고 화창했던 토요일 점심, 우리들만의 아지트인 한 레스토랑 VIP 룸에서 동창 13명이 반가운 모임을 가졌다. 회장의 기도로 모임이 시작되었다. 동창회보와 함께 회원들이 각자 준비한 작은 선물들을 정을 담아 나누었다. 항상 그래 왔듯 3분 근황 토크가 이어지며 끊임없는 웃음과 덕담이 오갔다. 이번 모임에는 특별히 전공을 살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은총(성악 19) 동창이 정회원이 된 기념으로 손수 만든 커피 건빵을 회원들에게 나누었다. 묘하게 맛있었다. 식사 후 아쉬움에 바로 헤어지지 못하고 2차로 멋진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또 우리들의 정담은 가계가 문을 닫는 시간까지 이어졌다.

싱가포르에서 8년 직장 생활을 하다 파트너 비자로 2024년 10월 멜버른에 오게 된 최수연(영문 16) 동창이 고맙게도 총동창회를 통하여 멜버른 회장과 연결을 원했고, 그 마음이 닿아 멜버른의 새로운 동창 가족이 되었다. 기쁜 마음에 다음 정기 모임까지 기다릴 수 없어 번개 모임으로 얼굴을 마주했다. 야무지고 예쁜 최수연 동창의 활약을 기대

정기 모임에 참석한 멜버른 지회 동창들



해 본다.

북가주(샌프란시스코) 지회

회장 _ 이영완(정의 81)

이화 창업지원단과의 교류 행사

지난 7월, 이화여자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운영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한국형 I-Corp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UC 버클리 연수에 참여한 학생 창업탐색팀과 북가주 지회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학생 4개 팀, 교수, 매니저들이 참석했고, 북가주 지회 동창들도 함께하여 창업과 현지 경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행사는 북가주 지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학생들의 프로젝트 소개, AI·스타트업 분야 동창들의 현지 경험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자유로운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학생들은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과 영감을 얻었다.

이번 만남으로 북가주 지회는 학생들에게 이화의 선후배 간 정을 전하고, 모교와의 연계 기반을 다졌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며 지속적인 교류와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모교 후배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진 북가주 지회



시애틀 지회

회장 __ 김희정(영문 83)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의 장

8월 23일(토) 페더럴웨이 스틸 레이크 파크에서 하계 야유회 행사를 가졌다. 야유회에는 시애틀 지회 동창과 동창 가족 80여 명이 참가하여 동창 간의 우정과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며 보람차고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줄다리기, 물 공 던지기, OX 게임, 박수 게임, 공 굴리기 등 지난 20대 시절 MT 가서 즐겼던 게임을 하며 무더운 날씨를 시원하게 날려 보냈다. 갈비 바비큐와 한식 뷔페로 차려진 풍성한 음식에다가 푸짐한 상품이 더해져 참가한 동창들 모두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만끽할 수 있었다.

한편, 제일 시원하고 멋지게 입고 온 동창 3명을 뽑아 베스트 피크닉 드레서 상을 시상했는데, 김신자(사복 66)·유양수(식영 74)·홍성희(약학 68) 동창이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야유회가 끝날 즈음에 다같이 손잡고 교가를 부를 때는 이화 동산을 거쳐 시애틀까지 이어져 온 아름다운 인연에 감사하며 동창의 끈끈한 정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30대 젊은 동창부터 80대, 90대 어르신 동창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의 장이 펼쳐진 멋진 하루였다.

가족과 함께한 하계 야유회에 참석한 시애틀 지회 동창들



시카고 지회

회장 __ 최지숙(무용 83)

새 회장단 첫 이사회 준비 모임

7월 1일(화)자로 새롭게 임명된 회장단은 첫 이사회 준비 모임을 8월 16일(토) 아리랑가든에서 진행하였다. 고문단을 포함한 임원 총 14명이 참석해 뜻깊은 만남을 가졌다. 모임은 새 회장단의 인사로 시작되었으며, 향후 동창회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가을 정기임원이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 사항과 역할 분담이 논의되었다.



이사회 준비 모임을 가진 시카고 지회

애틀랜타 지회

회장 __ 차희숙(체육 77)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 모임

8월 10일(일) 오후 1시 월례모임을 가졌다. 김아자(의학 63) 동창의 집에서 42명(동창의 남편 5명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정다운 시간을 보냈다.

개회 인사와 윤혜경(기독 76) 선교사의 개회 기도로 모임을 시작하였다. 처음으로 참석한 동창을 소개하고, 8월 생일인 동창 4명에게 케이크, 생일 노래와 함께 동창회에서 준비한 선물 증정이 있었다.

점심은 한식 뷔페로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행복함을 만끽했다.

에티오피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장은혜(영교 85) 선교사가 모임에 참석하여 그곳 활동 현황을 상세하게 들려줘서 몸소 실천하는 기분이 들었다.

오락 시간에는 이인순(약학 69) 이사장과 함께 컵돌리기, 지폐 접기를 하고, 워싱턴DC에서 열릴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참가자로 동창 15명, 동창 남편 2명의 참가 서류를 받아 접수를 완료했다. 단체 사진 촬영 후 9월에 있을 모임에도 건강하게 만나기를 기대하며 폐회했다.



월례 모임에 참석한 애틀랜타 지회 동창들

워싱턴DC 지회

회장 __ 이지은(불문 96)

따뜻한 나눔의 손길, 백팩 드라이브

워싱턴DC 지회는 지난 7월 21일(월) 한국 모교에서 방문한 8명의 학생과 5명의 지원단으로 이루어진 창업팀을 맞이했다. 전통주의 세계화를 꿈꾸는 '분말 막걸리' 팀, 환경을 생각하는 '생분해성 친환경 생리대' 팀, 그리고 시니어를 위한 건강 간식 개발을 모색하는 '사회적 기업' 팀까지, 다채로운 아이디어



모교에서 방문한 학생 창업팀을 만난 워싱턴DC 지회

를 가진 학생들과 깊이 있는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과 임원들은 미국 시장 내 제품 유통 및 판매 전략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폭 넓은 의견을 나누며 매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8월 2일(토) 이윤진(불문 94) 동창의 집에서 백팩 드라이브(Backpack Drive) 행사가 열렸다. 동창들과 자녀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해 학용품이 가득 담긴 백팩 40개를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완성된 백팩은 워싱턴DC의 비영리 단체인 '리틀라이츠(Little Lights)'에 전달되어 소외된 학생들에게 작은 희망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워싱턴DC 지회 지역 장학생으로 선정된 Angie Sohn(하버드대학원 진학 예정)과 Kailyn Kim(NYU 진학 예정)이 함께 참여해 자리를 더욱 빛내 주었다. 동창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덕분에 올해도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었다.

일리노이 지회

회장 __ 서석영(정외 94)

첫 지회 장학금 수혜자 선발 및 여름 야외 음악회 모임

올해 신설된 2025 EIL Conference Travel

Grant(이화 일리노이 학술대회 참가 지원금) 신청을 7월 말에 마감하고, 장학/후원위원회에서 한 달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수혜자로 원윤정(국제사무 13) 동창을 선정하였다. 원윤정 동창은 현재 UIUC(일리노이 대학교 어바나-섐페인)에서 교육학 박사과정에 있으며, 일리노이 지회 9월 피크닉 모임 때 전달식을 가질 예정이다.

8월 6일(수)에는 시카고 다운타운의 여름 야외 음악회 시리즈인 Grant Park Music Festival에서 몇몇 동창들이 돛자리, 와인 및 음식을 준비해 와서 Joshua Bell의 연주를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8월 29일(금)에는 온라인으로 임시 이사회를 가졌으며, 이화 일리노이 학술대회 참가 지원금 심사 결과 보고 및 전달식 일정, 9월 피크닉 일정, 10월 워싱턴DC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안내 및 11월 정기 이사회 일정 등을 논의하였다.



야외 음악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일리노이 지회 동창들

자카르타 지회

회장 __ 김연선(특교 95)

송별회로 석별의 정 나눠

6월 2일(월) 한식당 서라벌에서 동창회 모임을 가



귀국하는 동창들을 위해 송별회를 진행한 자카르타 지회

졌다. 이날은 특별히 이은애(작곡 75) 동창과 사기숙(피아노 75) 동창의 배우자들도 함께 참석해 자리를 더욱 빛내 주었다.

이번 모임에서는 아쉽게도 곧 귀국하게 된 사기숙·최해나(동양 87)·한경아(사교 01) 동창을 위해 작은 송별회도 함께 진행했다. 모두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

토론토 지회

회장 __ 조혜라(영문 96)

더운 여름에도 우리는 함께

올여름 토론토는 6월부터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토론토 지회 동창들은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함께 모여 웃음꽃을 피웠다.

6월 14일(토), 맑은 하늘 아래에서 피크닉 모임을 가졌다. 32명의 동창과 8명의 동창 가족이 참석해 각자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오랜만에 만난 서로에게 안부를 물었다. 특히 김용문(가정 61) 동창의 아들이 함께하여 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행사가 진행되는 내내 카메라로 사진과 영상을 찍어 주고, 연로한 동창들의 화장실 이동을 돕는 등 따뜻한 마음



피크닉 모임에 참석한 토론토 지회 동창들

을 보여 주어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맛있는 식사 후에는 즐거운 활동이 이어졌다. 김미진(경영 74) 동창의 인도로 신나는 음악에 맞춰 몸을 풀고, 최인자(식영 66) 동창의 지도 아래 올바른 호흡법을 배웠다. 이어진 게임 순서에서는 선배들의 재치와 순발력에 모두가 감탄하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7월과 8월 두 달 동안은 매주 토요일 오전에 걷기 모임이 이어졌다. 동창들은 토론토 곳곳의 아름다운 산책 코스를 함께 걸으며 건강을 챙기고 우정을 다졌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체조로 몸을 풀 뒤 이야기를 나누며 걷고, 서로 준비해 온 간식과 함께 티타임을 가졌다. 걷기 모임은 건강은 물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통하는 즐거움을 선사했다.

무더운 여름을 함께 이겨낸 토론토 동창회는 이제 다가오는 가을, 더 활발한 실내 모임으로 만날 날을 기대해 본다.

프랑스 지회

회장 __ 한연미(정의 90)

2025년도 정기 야유회

프랑스 지회는 6월 7일(토) 파리 서부 외곽에 위

치한 Saint Quentin en Yvelines 호수 공원에서 동창과 가족들을 초대하는 정기 야유회를 개최하였다. 정기 야유회는 가족과 동반하여 소풍의 기분을 만끽하며 자유롭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이다.

여러 선후배 동창들이 행사 준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었고, 임원단은 이동 차편 및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였다. 당일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야유회 준비에 애쓴 임원단의 노력에 기대 이상의 답으로 많은 인원들이 모였고,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았다. 동창들은 복잡한 파리에서 멀리 벗어나 맑은 공기를 즐길 수 있는 대자연 속 공원에서 순조로이 행사를 즐길 수 있었다.

지방에 살며 오랜만에 참석한 동창들, 처음으로 참석한 신입 동창들과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까지 총 37명의 이화인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숯불구이와 각종 한식, 디저트, 음료 등으로 푸짐하고 맛난 식사를 마친 후 게임과 경품 코너 등의 오락 시간을 즐겼다. 부부가 함께 파리국립오페라단에서 성악가로 활동하는 동창 가족이 즉석으로 멋진 이탈리아 가곡을 공연하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야유회를 준비한 임원단의 수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동창들은 다같이 모교 교가 제창으로 행사를

가족과 함께 야유회에 참석한 프랑스 지회 동창들



를 마무리하였다.

필라델피아 지회

회장 __ 이교연(영교 70)

싱그러운 녹음을 즐긴 야유회 모임

6월 7일(토) 뉴저지 주에 있는 스미스빌 공원에서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온 부부 회원들과 공원 인근에 거주하는 회원들 8명이 야유회를 가졌다. 번잡한 대로에서 5분만 들어가면 멋진 공원과 산책로, 드넓은 호수가 펼쳐져 있어 바쁜 일상에 찌든 심신을 달래 주는 멋진 곳이었다. 아침 나절의 흐린 날씨를 대비해 우산을 준비했으나 정자 안에서 불고기 쌈밥 점심을 먹고 나니 싱그러운 녹음 사이로 햇살이 우리를 반겨 주었다.

지문자(기악 67) 동창이 마련한 맛있는 케이크와 과자를 후식으로 먹고 나서,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산책로를 걸으며 맑은 공기를 맘껏 만끽하였다. 드넓은 호수 위에 펼쳐져 있는 연잎을 보면서 꽃이 아직 피지 않았음을 아쉬워했지만, 탁 트인 호수 위에 만들어진 출렁다리를 거닐며 무릉도원의 기분을 만끽하였다. 몇 번이라도 다시 와보고 싶은 멋진 공원이었다.

8월 2일(토) 13명의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전의 모임 장소였던 서라벌회관이 문을 닫는 바람에 뚝배기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10월 23일(목)부터 26일(일)까지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의 참가를 독려했다.

2부 순서로는 김영석 교수가 'Saint Helena'란 주제로 강의를 해주었는데, 직접 로마에서 찍어온 사진을 보면서 이 성녀의 위대한 일생을 조명해 보는



야유회에 참석한 필라델피아 지회 동창들

시간을 가졌다.

서기 246년경에 태어나 살아생전 많은 업적을 남긴 헬레나 성녀는 최초의 성지 순례자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는 가장 높은 지위인 Augusta에 올랐고 306년 아들인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해 로마제국의 기독교가 공인을 받았다.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신념, 권력과 재물의 현명한 사용 등 로마를 비롯하여 세계의 역사를 바꾸었고 죽은 후에는 성인의 반열에 올랐던 여성이다. 그 이외에 많은 치적을 쌓은 이 성녀를 공부하면서 지혜와 용기, 덕목을 갖춘 여성의 존재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비추어보는 시간이었다.

홍콩 지회

회장 __ 최성희(정외 87)

홍콩의 여름, 이화로 물들다

6월 12일(목), 60년의 세월을 홍콩에서 지내며 이화의 터전을 굳건히 지켜온 방혜자(교육 66) 동창의 따뜻한 초대로, 홍콩에서 명성 높은 The Hong Kong Country Club에 13명의 이화 동창들이 모여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예보된 비를 비껴간 하늘은 뜻밖의 맑은 날씨로 우리를 반겼고, 구름



The Hong Kong Country Club에서 모인 13명의 이화인들

한 점 없이 투명하게 펼쳐진 하늘 아래, 바다는 그 끝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고 푸르게 빛났다. 그 날의 햇살처럼 따스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환대하며, 오랜 시간의 간극을 이야기로 메워나갔다.

하지만 이화의 여름은 단지 그 하루로 끝나지 않았다. 7월과 8월, 홍콩 곳곳에서 펼쳐진 이화인들의 모임은 마치 도시 속에 피어난 작은 축제처럼 다채롭고 풍성했다. 7월 4일(금)에는 HKAPA William Au Concert Hall에서 샤이닝 글로벌의 대표 이미경(불문 85) 동창이 기획한 정필립과 마리오 박의 듀오 리사이틀 공연에 8명의 동창들이 참석해 음악의 울림 속에서 예술과 우정이 교차하는 감동의 밤을 함께했다.

이어진 7월 15일(화), 박 현(정외 88) 동창이 이끄는 예술 소모임 '아트이화'는 한국문화센터에서 열린 이응노·박인경 작가의 전시회를 함께 관람하며 예술에 대한 깊은 감동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8월 5일(화), 최성희 회장이 이끄는 골프 소모임 '디비퀸즈'가 발대식을 열어 새로운 시작을 힘차게 알렸다. 이화 동창들의 단단한 결속과 활기찬 에너지가 모인 이 모임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서로를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연대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홍콩의 뜨거운 여름 동안에도 이화라는 이름은 예술과 우정 그리고 새로운 시작으로 물들어 갔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은 이화라는 이름 아래 더욱 빛나고 있었다.

휴스턴 지회

회장 __ 이은경(사교 92)

북클럽 모임으로 알찬 여름

5월 모임을 끝으로 여름에는 휴스턴 지회 동창들의 고국 방문과 여행 스케줄 등이 이어져 정기 모임이나 행사는 갖지 않았다. 하지만 두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북클럽 회원들은 여름에도 계속 모여 알찬 시간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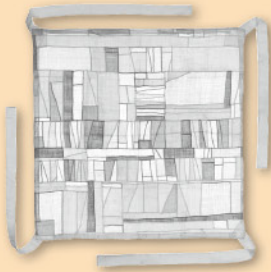
2월과 4월에 모였던 북클럽은 여름에도 6월과 8월에 한인회관과 동창들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다. 북클럽에서는 이지민(용보 81) 동창의 주관으로 동서양의 현대 문학은 물론 고전 문학, 사회 과학 등 다양한 책을 선정해 함께 읽고 서로의 다양한 시각과 감상을 나누며 의식의 폭을 넓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책뿐만 아니라 책에 등장하는 음식이나 스낵을 준비해 지식뿐 아니라 마음도 함께 풍요해지는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게 더 큰 즐거움이었다.

북클럽으로 지식과 마음을 풍요롭게 한 휴스턴 지회





옷(衣), 시간을 입다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이 개관 90주년을 맞아 특별전 <옷(衣), 시간을 입다>를 개최한다. 5월 28일(수)부터 11월 28일(금)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조선 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우리 옷에 담긴 시간의 흐름을 조명하였다.

이번 전시에서는 '철릭', '원삼', '직금저고리' 등 조선시대 왕실과 사대부의 화려한 옷부터 모시, 삼베, 무명으로 만든 실용적인 옷, 그리고 1950년대 이후 변화된 근현대 한복까지 총 200여 점의 유물을 선보인다.

전시는 총 5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선시대 최고급 비단옷, 개인의 삶이 담긴 소품들, 자연 섬유로 만든 옷, 근현대 한복의 변화, 그리고 영화 속 한복을 통해 우리 옷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관람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오후 7시까지 연장 관람이 가능하다.



이화 창립 70주년 기념 한복

김현순(법학 60) 동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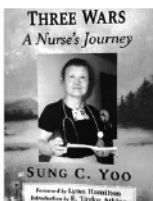
김현순 동창이 모교에 '이화 새시대 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하였다. 모교는 7월 21일(월) 모교 본관에서 기금전달식을 갖고 김현순 동창에게 감사를 표했다. 김현순 동창은 이에 앞서 지난 2022년 'EGPP 김현순 장학금' 1억 원, 2024년 '이화 웨스트 캠퍼스 건립기금' 5,000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김현순 동창

유성전(이성전, 간호 64) 동창

미국에 거주 중인 유성전 동창이 영문 회고록 『From North Korea To America Through Three Wars』를 출간했다. 유성전 동창은 한국전쟁 때는 10대의 소녀였고, 베트남 전쟁 때 민간 간호사였으며, 이후 미국에서는 아내이자 엄마, 그리고 1971년부터 2015년까지 총 43년간 간호사로 활동하며 살았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부단히 도전한 한인 여성의 증언이자 한 세대의 역사인 유 동창의 회고록은 아마존닷컴에서 구매할 수 있다.



유성전 동창

최청규(영문 65) 동창

최청규 동창이 (재)현우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이화-현우 여성과 평화 학술상' 기금으로 매년 900만 원씩 5개년에 걸쳐 장학금을 기부하기로 모교 대외협력처와 약정하였다. 최청규 동창은 어머니 방숙자(가사 41) 동창과 딸 광상희(영문 92) 동창까지 3대에 걸친 동창 가족으로, 꾸준한 장학금 기부로 유명하다. 이



최청규 동창

들은 2018년 방숙자 동창의 백수를 기념해 3,000만 원의 장학금을 기부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했다.

김매자(무용 66) 동창

8월 22일(금)부터 30일(토)까지 서울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과 포스트극장, 세종시 세종예술의전당에서 창무국제공연예술제가 열렸다. 집행위원장인 김매자 동창은 국제무용축제인 창무국제공연예술제를 올해로 31회째 이끌어 오고 있다. 김매자 동창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의 춤이 해외로 나가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명감을 갖고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매자 동창

김선진(국문 66) 동창

김선진 동창이 한국산림문화회에서 수여하는 제11회 '산림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수상 작품은 시「숲, 눈과 귀를 열다」이며, 시상식은 1월 22일(수) 국립산림과학원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산림문학상은 숲 사랑, 생명 존중, 녹색 환경 보전의 가치를 담아 국민의 '정서 녹화'에 기여하는 작품을 발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선진 동창

김선향(영문 66) 동창

김선향 동창의 한영 시집 『안녕(SO LONG)』이 '2025년 오르페우스 텍스트-올해의 책'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1998년부터 2024년까지 펴낸 세 권의 운문일기에 수록된 시 중 50수를 엄선하여 영시로 번

역본을 붙인 한영 시집 『안녕(SO LONG)』은 미국 텍사스대에 기반을 둔 문두스 아르티움 출판사(Mundus Artium Press)에 의해 올해 7월 현지에서 출간되었다. 김선향 동창의 시는 개인적인 삶의 기록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격동적인 순간들을 담아내고 있다. 시상식은 10월에 한국에서 열린다. 김선향 동창은 경남대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선향 동창

김춘미(약학 66) 동창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김춘미 동창이 20년간 거주했던 일산 자택을 사회복지법인 ‘안나의집’(대표 김하중 빈첸시오 신부)의 청년 자립 지원 쉼어하우스로 기증하였다. ‘안나의집’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함께 생활하며, 안정된 일상과 독립을 대비할 수 있도록 ‘쉼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김춘미 동창이 기증한 집은 안나의집이 운영하는 ‘쉼어하우스’ 가운데 열 번째 시설이 되었다.



김춘미 동창

김혜순(섬예 66) 동창

7월 15일(화)에서 23일(수)까지 국가무형유산전수교육관 3층 전시실 ‘울’에서 제32회 한국매듭연구회 회원전 ‘매듭장의 품, 격’을 개최하였다. 한국매듭연구회 회장인 김혜순 동창은 국가무형유산매듭장 보유자이다. 전시 주제는 ‘전통 남성용품 매듭공예’로, 선비의 일상과 정신이 담긴 작품들을 선보였다.



김혜순 동창

윤방순(정외 69) 동창

미국 Central Washington 대학 명예교수인 윤방순

동창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Global Summit of Women(GSW) 제35차 국제회의와 연계하여 한국의 성주재단이 7월 4일(금) 주최한 Korea-Germany Youth Forum, ‘Global Leadership in the AI Era’에서 Keynote Speaker로 주제 발표를 하였다. 강연 제목은 〈AI 시대의 파워 게임: 정부권력 대 민주사회 시민의 정치력〉이었고, 독일 교포 1-3세대, GSW 한국 참가자, 현지 학자, 기업인, 여성 전문직 종사자 등 다양한 배경의 청중이 참석하였다. GSW 회의는 매년 여성의 리더십 개발과 Global Networking 향상을 돕기 위한 주제로 열리는데, 금년의 베를린 회의에는 60개국에서 1,0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윤방순 동창

이배용(사학 69) 동창

한국의 최초 사액 서원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소수서원의 최초의 여성 원장으로 모교 12대 총장을 역임한 이배용 동창이 취임하였다. 그리고 소수서원 최초로 여성 초헌관을 맡게 되었다. 이배용 동창이 소수서원 최초의 여성 원장으로 취임한 것은 2019년 한국의 산사와 한국의 서원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당시 소수서원을 비롯해 9개 서원(도산, 옥산, 병산, 남계, 도동, 필암, 무성, 돈암)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배용 동창

이성영(섬예 70) 동창

9월 3일(수)부터 8일(월)까지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에서 ‘해를 품은 달’ 개인전을 가졌다. 이성영 동창은 달의 화사함, 생명력에 감동받을 수년간 달을 주제로 작업해 왔다. 70대가 되어 본격적으

로 화가의 길에 들어선 이성영 동창은, 닭을 화폭에 담으며 '닭 그림 화가'로 불리기 시작했고, 그동안의 작업으로 대한민국미술대전, 한국창조미술대전에서 특선을 수상했다.

구혜정(정외 71) 동창

안중근 의사의 유묵 〈녹죽(綠竹)〉이 일본에서 환수돼 처음으로 국내에 공개됐다. 구혜정 동창이 지난 4월 22일(화) 열린 서울옥션 경매에서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9억 4,000만 원에 낙찰받아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작품이 공개된 것이다. '녹죽'은 '푸른 대나무'를 뜻하며, 굳건한 절개와 지조를 상징하는 글귀로 안중근 의사가 평생 마음속에 깊이 새겨온 사상과 정신을 잘 드러내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녹죽〉은 8월 12일(화)부터 10월 12일(일)까지 덕수궁 돈덕전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특별전 '빛을 담은 항일유산'에서 전시되었으며, 8월 21일(목) 국립합창단 주최 광복 80주년 특별 연주회에서도 공연 전 사전 강연을 통해 실물 유묵이 공개되었다.



구혜정 동창

김화숙(의학 71) 동창

늦깎이 의사 화가 김화숙(김화내과 원장) 동창이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에서 주최하는 제13회 한국창작문화예술대전에 출품한 작품의 창의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아 한국에 슬문화총연합회장상(올해의아티스트)과 은상을 수상하였다. 시상식은 8월 22일(금)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렸다. 또한 9월 1일(월)부터 7일(일)까지 서울 중구문화원 예원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가졌다.



김화숙 동창

양수화(종음 71) 동창

(사)글로리아오페라단 이사장 겸 단장인 양수화 동창이 제16회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개막작이며 글로리아오페라단 창단 34주년 기념 공연으로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을 6월 6일(금)부터 8일(일)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공연하여 큰 호평을 받았다. 양수화 동창은 평택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하였다.



양수화 동창

제8회 이화퀼트전

9월 2일(화)부터 6일(토)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2층 이화아트센터에서 제8회 이화퀼트전을 가졌다. 나이와 전공을 떠나 퀼트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모인 동창들의 모임으로 매년 전시회를 갖고 있다. 올해 전시회에 참여한 24명의 동창은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강화영(생명 81), 고은경(물리 86), 김경주(화학 86), 김만애(의학 66), 김미라(교공 86), 김순희(수학 78), 김용정(사회 85), 김은수(디대원 91), 김춘미(무용 84), 김희원(영교 83), 박영애(교육 68), 박영주(대학원 89), 서희성(식영 91), 송영선(간호 71), 신현정(커미부 97), 이수련(수학 83), 이영민(디대원 96), 임 형(수학 77), 정영주(교공 81), 최은령(영문 85), 허순희(유교 77), 현혜정(생미 89), 홍동희(생미 89), 홍한이(음보 85).



김규련(최규련, 간호 72) 동창

김규련 동창이 생애 첫 수필집 『어느 미국 간호사의 삶의 발자국』을 출간하였다. 김규련 동창은 이 수필집에 약 36년간의 간호사 생활과 미국 생활의 단상을 담았다. 출판기념회는 9월 13일(토) 오전 11시에 웨스트민스터 OC제일장로교회에서 가졌다. 한편 김 동창은 8월 23일(토) 미주한국문인협회 주최 미주문학수필부문 신인상을 수상하였다.

박명숙(무용 72) 동창

박명숙 동창은 2025년 대한민국예술원 연극·영화·무용 분과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한국현대무용진흥회에서 주관하는 2025 K-Wave Dance Festival 운영 용역 평가위원장 및 예술행정협회 상임고문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이다. 또한 3월 24일(월)부터 30일(일)까지 대한민국예술원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여 한·중 문화예술기관인 주중한국문화원, 중앙민족대학교, 중국중앙발레단, 베이징사범대학교, Teenager Arts Festival 매력교원(魅力校園)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는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구술채록 자료집을 제작 및 발간하였다.



박명숙 동창

박재희(무용 72) 동창

9월 28일(일) 오후 4시 청주 문화제조창 중앙광장에서 '2025 국가무형유산 태평무 공개행사-태평무의 날: 다함께 태평무를 춤추다' 행사를 가졌다. 이날 1부 행사 '태평무의 뿌리와 흐름을 이야기하다'에서는 국가무형유산 태평무 보유자인 박재희 동창이 직접 태평무의 창작 배경과 전승사를 해설하였다. 이어진 2부 '태평무, 그 예술의 맥을 잇고 걸을 다듬어



박재희 동창

정신을 전하다'에서는 박재희 동창을 비롯해 이수자·전수자 30여 명이 무대에 올라 춤사위를 펼쳤다. 박재희 동창은 청주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청주시립무용단 안무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을 지냈다.

목남희(정의 73) 동창

목남희 동창이 '이화 웨스트 캠퍼스 건립기금'으로 1억 원을 기부하였다. 이에 모교는 9월 1일(월) 모교 본관 접견실에서 기금전달식을 열어 감사를 표했다. 기금전달식에는 기부자인 목남희 동창을 비롯해 이향숙 이화여대 총장, 박정수 연구·대외부총장, 최윤정 대외협력처장, 박은영 대외협력처부처장과 이양준(정의 70) 동창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목남희 동창은 국제 공인 회계사(AICPA)로서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 회계 파트에서 근무했으며, 엘리자베스 아덴 최고재무책임자(CFO), 셰링푸라우코리아 대표이사, 단국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부 교수 등을 역임하며 다국적 기업과 학계를 아우르는 전문경영인으로 활동해 왔다.



목남희 동창

양미라(성악 75) 동창

양미라 동창이 워싱턴DC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과 함께 '한국 시와 노래의 밤'을 기획하여 4월 4일(목) 공연하였다. 6월 16일(월)부터 21일(토)까지 워싱턴DC 케네디 센터에서 신진 예술가들을 위한 워크숍과 공연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또한 이탈리아 토디에서 야코포네 다 토디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페르골레시가 작곡한 야코포네 다 토디의 〈스타바트 마테르〉를 지휘했다. 한편 AAMS 국제 여름 음악 축제 예술 감독으로서 6월 23일(월)부터 7월 5일(토)까지 토디 코무날레 무지카에서 워크숍을 진행하여 또 다른



양미라 동창

성공적인 공연을 선보이며 호평을 받았다. 이후 10월 26일(일)부터 11월 15일(토)까지 AAMS 성악 콩쿠르, 마스터 클래스 그리고 공연을 케네디 센터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운경(불문 75) 동창

세종솔로이스츠 이사장인 이운경(국립현대미술관 후원회 부회장, 프리즈 서울 호스트 커미티 체어, 전 국제 소롭티미스트 한국협회 총재) 동창은 8월 22일(금)부터 9월 5일(금)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과 다양한 공간에서 제8회 HIC NUNC 뮤직 페스티벌을 진행하였다. 이번 축제에서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작 『키메라의 땅』을 주제로 한 〈키메라 모음곡〉(작곡: 김택수)의 초연과 베르베르 본인의 낭독으로 이루어진 연주회 등으로 성황을 이루었다.



이운경 동창

이미연(동양 76) 동창

6월 27일(금)부터 7월 9일(수)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갤러리 내일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이번 전시의 작품 대부분은 이미연 동창이 현재 머무르고 있는 전남 고흥에서 제작되었다. 이미연 동창은 아침마다 마주하는 소소한 자연의 풍경과 성경을 통한 지존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루의 가장 큰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미연 동창

이남숙(생명 77) 동창

모교 생명과학과 명예교수인 이남숙 동창이 6월 1일(일)부터 30일(월)까지 Gallery Schloss에서 '유월의 듀엣' 뜨개전을 개최하였다. 이영희(생미 68, 디자인학부 명예



이남숙 동창

교수) 동창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빛'을 주제로 하여 끈, 실, 천, 비닐, 철사 등의 재료로 한 땀 한 땀 코비늘로 화폭을 물들였다. 이남숙 동창은 제39회 하은생물학상을 수상하였고, 『한국의 난과 식물도감』, 『식물의 모든 것, 모든 들꽃은 꽃을 피운다』를 저술하는 등 활발한 학술 활동을 하였으며, 퇴임 후에는 뜨개전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며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장영란(섬예 77) 동창

(사)한국공예가협회 회장인 장영란 동창은 2025년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한일 국제공예교류전'을 7월 8일(화)부터 13일(일)까지 일본 교토문화박물관에서 개최하였다. 이 교류전에 봉지희(섬예 85)·윤미경(섬예 85)·유운경(섬예 87)·김유림(섬예 89)·전경화(섬예 89)·이상영(섬예 94)·이혜원(섬예 96)·신지혜(섬예 02) 동창이 참여하였다. 또한 (사)한국공예가협회는 8월 7일(목)부터 10일(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5 핸드아트코리아 페어'에 참가하여, 'HANDS·MIND·PASSION'이라는 주제로 공예의 본질과 현대적 실용성을 담은 작품들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는 제52회 협회 정기 활동의 일환으로, 미술관 전시 형식이 아닌 관람객과 직접 소통하는 아트페어 참여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전시장에는 창작자들의 실용적이고 감성적인 공예 작품들이 전시되었으며, 관람객은 공예의 창작 과정과 작가의 철학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었다.



장영란 동창

남성희(커미부 78) 동창

대구보건대학교 총장 남성희 동창이 필리핀 Centro Escola Univercity(CEU)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등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7월 17일(목)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CEU는 1907년 창립돼 118

년 역사를 지닌 필리핀 대표 사립 대학이다. 남성희 동창은 아시아태평양대학연합회(AUAP) 회장을 역임하며, 아시아 고등교육기관 간 실질적 연계와 교류를 이끌어 왔다.



남성희 동창

박정선(의학 78) 동창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이자 대구가톨릭대학교 보건안전학과 석좌교수이기도 한 박정선 동창이 첫 그림 에세이집 『우울할 땐 뭘 하세요』(문예바다)를 펴냈다. 박정선 동창은 언젠가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는 날에 대비하여 가족과 자신을 아껴 준 사람들에게 미리 써 두는 작별 인사라면서, 일하는 틈틈이 그린 그림과 글을 한데 엮었다.



박정선 동창

이노연(무용 78) 동창

2025 경기예술지원 2차 원로예술활동지원사업 공연예술분야 선정작 <2025 이노연 승무 ONE: 현대 한국 여성의 심성을 담다>를 7월 19일(토) 오후 6시 가회당 소극장(수원)에서 공연했다. 이노연 동창은 이 공연의 기획과 연출, 총감독을 맡았다. 또한 6월에는 '2024년 우수이수자 역량강화사업' 성과물로 승무 교수법 전승교육 동영상 제작 공개했다. 동영상은 <이노연 클래스> 승무편 총 4편(염불, 타령, 굿거리, 법고)이다. 이노연 동창은 '연연(然然) 이노연무용단'의 예술감독 및 대표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노연 동창

홍미영(사회 78) 동창

홍미영 동창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새로운 일상을여는사람들의 책 출판기념회가 7월 23일(수)

인천 부평아트센터에서 열렸다. 이번에 출간한 『반드시 열어야 하는 새로운 내일』은 폭염과 한파, 전염병 등 재난과 불평등, 기본소득 등 우리 공동체가 당면한 절박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홍미영 동창

박지영(불어교육 79) 동창

수필집 『구름을 사랑한 보르레르』를 발간하였으며, 8월 21일(목) 대구시 수성구에 위치한 용학도서관 4층 창의체험실에서 '신화 속 여성의 삶과 글쓰기'를 주제로 '시인과의 만남'을 진행하였다. 한편 용학도서관 3층 시(詩)라키비움에서는 박지영 동창의 시집과 애장품을 전시(7월~9월)하였다.



박지영 동창

신은숙(조소 79) 동창

6월 1일(일)부터 30일(월)까지 송도아트갤러리에서 신은숙 초대전을 개최하였다.



신은숙 동창

김은미(사회 81) 동창

김은미 동창이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임기는 10월 28일(화)부터 시작된다. 김은미 동창은 모교 대학원장, 제17대 총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유엔여성기구 친선대사를 맡고 있다.



김은미 동창

류시숙(서양 82) 동창

류시숙 동창이 대구미술협회 초대작가상을 수상하였다. 시상식은 7월 23일(수)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에서 열렸다.



류시숙 동창

박은영(무용 83) 동창

박은영 동창은 8월 15일(금)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에서 광복 80주년 기념공연 <시민들과 함께하는 궁중무용 여민마당-일월오봉도>를 공연했다. 궁중무용을 교육·공연하고 있는 박은영 동창은 2014년부터 '시민들과 함께하는 궁중무용 여민마당' 공연을 개최해 왔다. 박은영 동창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은영 동창

정미라(의학 83) 동창

대한기독교여자의사회 회장 정미라 동창이 보령의료봉사상을 수상하였다. 77년이라는 세월 동안 의료 불모지에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온 대한기독교여자의사회는 정기적인 무의촌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해외 봉사도 도움이 절실한 이들도 후원하고 있다. 정미라 동창은 대한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 재직 중이다.



정미라 동창

최지숙(무용 83) 동창

시카고 한국무용단은 7월 27일(일) 스코키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시카고 한국무용단 2025 대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 공연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한국무용을 선보였으며, 특히 궁중무용 <선유락>과 <북의 향연> 등이 포함되었다. 최지숙 동창은 시카고 한국무용단의 창단 멤버이자 부단장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최지숙 동창

김수현(무용 84) 동창

8월 5일(화) 대전시립무용단 신임 예술감독 겸 상임

안무자로 위촉되었다. 임기는 2년 간이다. 김수현 동창은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무용단장을 역임했고, 부산시립무용단과 국립부산국악원 등에서 객원 안무자로 활동하는 등 다채로운 경력을 쌓아왔다.



김수현 동창

정다미(영문 84) 동창

명지대 경영대학장 정다미 동창이 세계여성이사협회(WCD) 한국지부 제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7월 1일(화)부터 2년이다. 정다미 동창은 현재 명지대 경영대학장과 경영대학원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유니드와 고려아연 사외이사로도 활동 중이다.



정다미 동창

피상순(의학 84) 동창

피상순 동창이 정책부회장으로 있는 경기도의사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하였다. 피상순 동창은 안산우리정신건강의학과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피상순 동창

김연숙(서양 85) 동창

9월 9일(화)부터 10월 31일(금)까지 서귀포 노바운더리갤러리에서 개인전 '별이 머물다 흐르고'를 가졌다. 별빛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연못에 잠시 머물다 다시 흘러가는 듯한 최근작들을 선보이는 초대전이다. 9월 20일(토) 오후 3시에 '작가와와의 대화'를 열고 관객과 대화를 통해 더 깊은 공감을 나누었다.

이경애(서양 86) 동창

9월 3일(수)부터 14일(일)까지 세종뮤지엄갤러리 1관에서 'Going Home'을 주제로 개인전을 가졌다. 이경애 동창은 '집'을 소재로 삶과 기억, 꿈을 상징적

조형 언어로 풀어내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임애덕(영문 86) 동창

제주의 미혼모자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청수의 대표 임애덕 동창은 노인, 한부모자, 학생 봉사자들이 세대 간 소통하며 치유와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인 TX School을 8월 30일(토) 신축하여 개관하였다. 이를 기념하여 '힐링아트 세대 간 소통: 나를 찾아가는 여행'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임애덕 동창

강석미(독문 87) 동창

8월 4일(일)부터 14일(목)까지 도봉구청 로비갤러리에서 강석미 동창이 제6회 개인전 '민화와 더불어 사는 세상'을 가졌다. 이번 개인전은 도봉구청 주최·주관으로 성사되었다. 민화 작가이자 궁중장식화 작가인 강석미 동창은 '정단 전통민화&궁중장식화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재능기부와 함께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양정인 동창

양정인(의학 87) 동창

아주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로 재직 중인 양정인 동창이 '제53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양정인 동창은 경기 남부 지역 고위험산모 의료전달 체계 구축과 24시간 분만센터 운영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특히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고위험 산모들에게 안전한 분만 환경을 제공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운경(김운경, 섬예 87) 동창

유운경 동창이 2025 청주국제공예공모전에서 수상하여, 전통 자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세

계 공예 무대에서 한국 자수의 미학을 알렸다. 시상식은 9월 4일(목) 청주공예비엔날레 개막행사에서 진행되었다.



유운경 동창

김영주(의학 88) 동창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영주 동창이 6월 21일(토)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CJ홀에서 열린 '대한모체태아의학회 제31차 학술대회'에서 특별학술상을 수상하였다. '유트로게스탄 발매 30주년 기념 특별학술상'을 수상한 김영주 동창은 조산 예방, 고위험 임신 관리, 여성 생식 건강의 정밀의료를 목표로 임상과 연구에 매진해 왔다.



김영주 동창

김은주(정치 88) 동창

김은주 동창이 소장자로 있는 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8월 19일(화)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25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여성·평화·안보) 채택 25주년을 맞는 해로 의미가 더욱 깊었다. 회의에는 일본과 대만의 여성 지도자와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각국의 사례를 공유했으며, 마지막 세션에서는 '아시아 여성의 동수·평화 이니셔티브(AWIPP)' 설립이 공식적으로 논의되었다.



김은주 동창

이경은(의학 88) 동창

이경은 동창이 8월 18일(월) 청호나이스 신임 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청호나이스는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세상에 없던 제품'을 만들어내는 '창신(創新)' 정신을 강화해



이경은 동창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은 동창은 모교 교수와 부학장을 역임하였다.

김선주·박가나·박은덕·박현우·정연주·한여옥(모두 서양 89) 동창
7월 1일(화)부터 8월 31일(일)까지 여수 디오션리조트 아트디오션 갤러리에서 이화여대 미술대학 85학번 동기 여섯 명의 작가들이 참여한 '이화 1985전'을 개최하였다. 대학 시절 함께 꿈을 키웠던 김선주·박가나·박은덕·박현우·정연주·한여옥 동창은 예술의 동료로 함께 성장해 온 여정을 공유하였다.

김수자(사학 89) 동창

모교 교수로 재직 중인 김수자 동창은 올해 국립여성사전시관과 함께 '국립여성사박물관 아카이브 구축 및 전시 연계 여성인물 기초 분석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국립여성사박물관 전시 구현 및 아카이브 구축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수자 동창은 9월 9일(화) 국립여성사전시관 대회의실(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박물관과 여성인물: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



김수자 동창

이미선(과교 89) 동창

이미선 동창이 기상청 신입 청장에 임명되었다. 기상청 최초의 여성 청장이다. 이미선 동창은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관측기반국장, 지진화산국장, 광주지방기상청장, 기후과학국장, 수도권기상청장 등을 거쳤고, 기후 변화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다.



이미선 동창

이주연(동양 90) 동창

8월 27일(수)부터 9월 9일(화)까지 인사동의 갤러

리 그림손의 기획으로 초대전을 열었다. 이번 전시의 타이틀은 'Structure, Space, Syntax'로, 단순화된 선들의 교차 사이에 드러난 전통 문양들이 강렬함과 명료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주연 동창

김 연(조소 91) 동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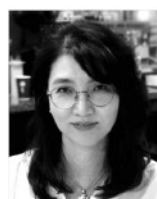
8월 5일(화)부터 11일(월)까지 '고요한 관조'라는 주제로 갤러리41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김 연 동창

오현아(섬예 91) 동창

5월 20일(화)부터 6월 16일(월)까지 아트허브 온라인갤러리에서 'Asemic Writing-Speaking Mind', 6월 24일(화)부터 29일(일)까지 사이아트스페이스 더플렉스에서 'Asemic-Speaking Mind'로 초대전을 가졌다.



오현아 동창

허윤희(서양 91) 동창

허윤희 동창이 7월 8일(화)부터 9월 7일(일)까지 성북구립미술관에서 '영원은 순간 속에' 전시를 가졌다. 이 전시는 성북구립미술관의 중진작가활성화 기획전시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열렸다. 아름답고 심원한 자연과 생의 본질을 탐구하는 허윤희 동창은 2024 이인성미술상을 수상하였다.



허윤희 동창

김윤덕(정외 92) 동창

조선일보 선임기자로 재직 중인 김윤덕 동창이 이화여대 출신 언론인 모임인 이화언론인클럽 회장에 선임됐다. 임기는 2년이다. 부회장은 최진숙(심리 95)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은지향(정
외 96) SBS 제작디지탈사업팀장,
하채림(약학 98) 연합뉴스 외교안
보부 차장이 맡는다.

정지강(피아노 92) 동창

충신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정지
강 동창은 7월 1일(화) 세종문화회
관 체임버홀에서 피아노 듀오 리사
이틀을 가졌다.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윤형숙(동덕여대 피아노
과 재직) 교수와 함께한 듀오 리사
이틀이 10회를 맞이하여 그 의미가 깊다.



김윤덕 동창



정지강 동창

지연수(영문 92) 동창

미국 시카고미술관 KF기금 큐레
이터직에 지연수 동창이 임명되었
다. 지연수 동창은 한국 근대화화
와 조선 궁중미술 전문가로 2020
년부터 시카고미술관에서 한국미
술 전담 큐레이터로 근무해 왔다.
KF기금 큐레이터직 설치 사업은 해외 우수 박물관과
협력해 한국 전담 큐레이터직을 영구적으로 운영하
기 위한 기금을 조성, 한국 미술의 해외 진출과 지속
가능한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연수 동창

박영희(동양 93) 동창

7월 9일(수)부터 27일(일)까지 하
코갤러리에서 30번째 개인전을 열
었다. 주로 수영장의 풍경을 그리
는 박영희 동창은 “일 년 중 여섯
달을 달려서 이윽고 칠월에 도착한
당신이라면 수영장이 있는 어딘가
에서 가쁜 숨을 고르고 잠시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
요?”라는 글로 사람들을 초대하였다.



박영희 동창

주보림(장미 93) 동창

모교 패션디자인전공 교수로 재직
중인 주보림 동창이 8월 1일(금)자
로 모교 디자인대학원 원장에 취임
하였다. 임기는 2년이다.



주보림 동창

서희정(성악 94) 동창

9월 4일(목) 서울 강북구 소재 꿈
의숲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Aquarelles〉 독창회를 가졌다. 서
희정 동창은 드뷔시의〈수채화〉 연
작과 포레의 서정적인 곡, 루이 아
라공의 시를 노래한 폴랑크의 가곡
등 프랑스 특유의 시적 감성을 무대 위에 펼쳤다. 서
희정 동창은 현재 동덕여대 성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
며, 상송오퍼 프로젝트를 통해 클래식과 대중예술의
융합에도 앞장서고 있다.



서희정 동창

허정은(정의 94) 동창

허정은 동창이 지난 2월 경기도일
자리재단 경영기획실장에 발령을
받았다. 허 동창은 ‘경기도 4.5일
제’ 시범사업 및 ‘베이비부머 라이
트 잡’ 등을 총괄 운영 중이며, 경
기도 공공기관 중 경영평가 1위를
달성했다.



허정은 동창

이소영(서양 95) 동창

이소영 동창이 7월 22일(화)부터
31일(목)까지 인천 중구 도든아트하
우스에서 개인전 ‘픽셀유랑(Pixel
Roaming)’을 가졌다. 이번 전시는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보편적 문제
인 ‘이주’를 디지털 매체인 ‘픽셀’을
통해 재해석하고 시각화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이소영 동창

은이선(동양 96) 동창

은이선 동창이 '이화 새시대 발전 기금' 5억 원을 기부하였다. 이번 기금은 이화여대가 도입한 'AI4AE (AI For All Ewha)' 프로그램 운영과 이화인의 AI 역량 강화, 인공지능 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에 사용될 예정이다. 은이선 동창은 모교에 발전기금과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기부하며 후배들을 지원해 왔다. 은이선 동창은 현재 한국 문화를 알리고 신진 아티스트를 후원하는 문화·장학기관 코리아넥션(Koreanecton) 대표로서 예술 작가들을 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전시 '에버-커넥티드(EVER-CONNECTED)'를 개최하기도 했다.



은이선 동창

이정애(사학 96) 동창

제25회 '올해의 이화언론인상'을 수상하였다. 이정애 동창은 SBS 보도본부 미래부장으로 30년간 SBS 기자로 재직하며 <미래한국리포트>, <SDF> 등 공익적 프로그램을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조명하는 등 한국 언론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언론인 트라우마 가이드북』을 제작해 언론인들의 심리적 회복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고 있다.



이정애 동창

한정아(장미 96) 동창

한정아 동창이 8월 27일(수) 바디워크(Bodywork) 신입 회장에 선임되었다. 바디워크는 1991년 장식미술과 패션디자인 전공 동창들의 전시 모임으로 시작된 패션아트 단체로, 지난 30여 년간 '예술로서의 패션'을 표방하며 국내외 전시회 개최, 학술 세미나, 동창과 학부생이 함께 참여하는 패션쇼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은강(도예 97) 동창

8월 5일(화)부터 11일(월)까지 갤러리 도스(서울)에서 개인전 '하늘을 보다'가 열렸다.



김은강 동창

박혜진(독문 97) 동창

독일 대기업 Siemens의 호주 본사인 멜버른에서 근무 중인 박혜진 동창은 Finance 팀 내에서 Trade Finance와 Forex 분야를 거쳐 현재는 IT Finance를 담당하고 있다. 수년간 전업주부로 육아에 전념한 뒤 16년 만에 재취업에 성공하여, 재직 중에도 Accounting을 공부하며 자기 계발을 이어갔고, 현재 8년째 풀타임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박혜진 동창

성인제(동양 00) 동창

6월 26일(목)부터 7월 6일(일)까지 금호미술관에서 'Flying People'이라는 제목으로 개인전을 열었다. 성인제 동창은 "이번 전시는 무겁고 고단했던 시간 속을 움직이며 그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의 서사"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느낀 생각과 감정들을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성인제 동창

강효주(한음 01)·천혜인(한음 19) 동창

모교 한국음악과 교수로 재직 중인 강효주 동창과 모교에서 음악박사 과정 재학 중인 천혜인 동창이 8월 21일(목) KBS아트홀에서 열린



강효주 동창

천혜인 동창

<KBS국악관현악단 창단 40주년 기념공연: 40, 그리고 내일 Ⅲ>에 협연자로 참여했다.

황주영(불문 02) 동창

7월 25일(금) 한국조경학회 6번째 학술 포럼으로 황주영 동창의 신간 『정원의 책』 북토크 〈문학에서 정원을, 정원에서 인간을 읽다〉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황주영 동창은 인문학 연구자이자 조경사 연구자로서 정원을 언어로 탐구하는 ‘가든 라이팅(Garden Writing)’의 국내적 실천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

조재영(조소 03) 동창

7월 9일(수)부터 8월 16일(토)까지 ‘One Breath Two Breaths’라는 주제로 우송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조재영 동창

홍민정(불문 04) 동창

7월 4일(금)부터 5일(토)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사단법인 대한민국 오페라단 연합회와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주최인 오페라 〈돈 조반니〉 연출을 맡아 성황리에 공연하였다.



홍민정 동창

이혜민(불문 05) 동창

8월 24일(일)부터 30일(일)까지 방배아트유스센터에서 전시 ‘BETWEEN: 나에게서 너에게로’를 기획하여 성황리에 전시하였다. 이 전시는 서초구와 방배아트유스센터 및 서초안단테 주최·주관으로 열렸다.



이혜민 동창

강정윤(건축 07) 동창

강정윤 동창이 올해의 ‘젊은 건축가상’을 수상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부터 우수한 신진 건축가를 양성하고자 젊은 건축가상을 운영하고 있다.

시상식은 10월 21일(화) 서울 노들섬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건축문화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정윤 동창은 에이루트 건축사사무소 대표이다.



강정윤 동창

이서형(제약 07) 동창

법무법인 대륜의 의료제약그룹장을 맡고 있는 이서형 동창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다. 이서형 동창은 제약학과 졸업 후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약사 출신 변호사로, 모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도 취득했다.



이서형 동창

조주현(서양 11) 동창

8월 29일(금)부터 9월 27일(토)까지 서울시 중구 동호로 페이토 갤러리에서 ‘공존을 향하는 일(A Work Towards Coexistence)’을 주제로 개인전을 가졌다. 조주현 동창은 이번 전시에서 회화와 드로잉을 포함해 총 52점의 신작을 선보였다. 베를린을 무대로 활동하는 작가 조주현 동창은 런던, 베를린, 브로츠와프 등지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BBA 아트프라이즈 3위(2022), Barbican Arts Group Trust Prize 본선(2023) 등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았다.



조주현 동창

김세은(서양 13) 동창

7월 16일(수)부터 9월 6일(토)까지 서울시 종로구 소재 뮤지엄헤드에서 ‘Pit Calls Wall- 타면 나타나는 굴’ 개인전을 가졌다. 개발을 목표로 둔 도시의 변화를 회화의 주제로 탐색해 온 김세은 동창은 ‘굴’과 ‘터널’을 도시의 이면과 지각의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장소로 제시하였다.

박선화(의전원 14) 동창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로 재직 중인 박선화 동창이 6월 21일(토)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CJ홀에서 열린 '대한모체태아의학회 제31차 학술대회'에서 '젊은의학자상'을 수상하였다. 박선화 동창은 임신부가 초미세먼지 노출 시 태아에 대한 영향을 관찰한 연구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냈다.



박선화 동창

김다슬(조소 15) 동창

7월 5일(토)부터 19일(토)까지 '깊은 심도'라는 주제로 BLC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김다슬 동창

박 현(디대원 16) 동창

의류 브랜드 '므아므(MMAM)'를 이끌고 있는 패션 디자이너 박 현 동창이 2026 봄여름(SS) 서울패션위크 마지막 날인 9월 7일(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패션쇼를 열었다. '므아므'는 2018년 브랜드 론칭 이후 서울패션위크에는 세 번째 참가했다.

나윤선(동양 17) 동창

9월 3일(수)부터 10월 18일(토)까지 서울 강남구 리나 갤러리에서 개인전 'Hidden Bearings-비가현도(秘可現圖): 숨겨진 지도'를 가졌다. 나윤선 동창은 전통적인 재료인 한지 대신 나무를 사용해 조각과 드로잉을 결합한 새로운 시도를 선보였다. '비가현도'는 '숨겨진 지도'라는 의미로, 작가가 의도한 규칙과 우연이 교차하며 완성되는 작품의 특성을 잘 나타낸다.

김리우(도예 19) 동창

6월 17일(화)부터 9월 30일(화)까지 스타벅스 과천 DT점 2층 별빛미술관에서 첫 개인전 'Beyond Perfection: 달항아리, 완전함 너머'를 열었다. 김리

우 동창은 전통 달항아리를 현대적인 시작으로 재해석한 다채로운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김리우 동창의 달항아리 작품은 9월 라트비아 로스코 미술관에서 열린 세라믹 비엔날레 'MARTINSONS AWARD 2025'에 최종 후보로 선정되어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미를 새롭게 선보였다.



김리우 동창

정주원(경영 21) 동창

정주원 동창이 대표이자 공동 창업자로 운영 중인 (주)베스팩스가 여성 건강관리 플랫폼을 개발하며 펩테크 분야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특히 2025년 CES에서 'AI 웰니스 혁신상'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국내 유일의 바이오 기반 펩테크 연구소를 보유한 베스팩스는 최근 20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정주원 동창

류정하(도예 23) 동창

7월 2일(수)부터 13일(일)까지 갤러리 WWW SPACE 2(서울)에서 개인전 '두꺼운 벽 얇은 펄프'를 가졌다.



류정하 동창

고(故) 엄정윤(섬예 49) 동창

섬유예술전공(구 자수과) 동창이며 섬예과 명예교수인 엄정윤 동창이 7월 20일(일) 별세하였다. 많은 섬유예술학과 동창, 제자들은 연세대학교 신촌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하였다.



엄정윤 동창

총동창회 후원이사를 모십니다



총동창회에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 주시는 이화 동창 여러분께 총동창회 후원이사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총동창회 후원이사는 2년 임기이며 회비는 연 100만 원 (이상)입니다.

총동창회는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을 바탕으로 모교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모교발전기금 전달, 각종 사업-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 이화 가족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동창의 날 기념행사 및 합창제, '영원한 이화인'과 '올해의 이화인' 추대, '빛나는 이화인' 및 '아름다운 이화인' 상 시상, 대바자회, 국내 및 해외 지회 순방, 후원이사 초청 오찬회, '이화인의 밤' 행사 개최, 《이화동창》 회보 발간- 등을 통해 이화의 진선미 정신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자종합대학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을 가진 이화, 이제 세계 최고를 향해 나아가는 이화의 주인이자 힘의 원천은 바로 '이화 동창'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동창으로서 후원이사 가입을 통해 모교 사랑의 힘을 보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 총동창회 사무국

전화: 02-3277-3386~7

E-mail: ewhaalum@ewha.ac.kr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동 창 이 퍼 낸 새 책



너에게 쓴다

천양희(국문 66)

천양희 지음/창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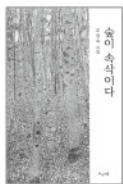
등단 60주년을 맞이한 시인 천양희 동창이 직접 고르고 다듬은 시선집 『너에게 쓴다』를 펴냈다. 이번 시선집에는 「너무 많은 잎」(공초문학상 수상작), 「나는 가끔 우두커니가 된다」(만해문학상 수상작) 등 천양희 동창의 시집 여덟 권에서 엄선한 6편의 시가 수록되었다. 표제작인 「너에게 쓴다」는 2020년 광화문글판에도 실렸던 시로, '쓰다'라는 동음이의어를 활용해 의미와 이미지를 확장한다. 1965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한 천양희 동창은 소설시문학상, 현대문학상, 청마문학상, 만해문예대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2017년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으로 선출됐다.



숲이 속삭이다

조점숙(사학 75)

조점숙 지음/지성의 샘
시인이자 현대문학자인 조점숙 동창이 시집 『숲이 속삭이다』를 출



간했다. 시집은 '숲에 살다', '숲에서 사색하다', '지난날을 회상하다', '자연이 속삭이다'의 4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마약, 중독에서 회복으로

전종설(사복 98)

전종설 지음/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전종설 동창은 마약 중독을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정책적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보는 관점을 견지한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이 책에서는 다양한 회복의 방법들을 소개하고, 국내외 치료 및 재활 서비스, 정책 등을 비교 분석한다. 모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전종설 동창은 오랜 기간 중독 분야를 연구해왔으며, 국립정신건강센터 중독정신건강협의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여러 유관기관 위원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밤호수의 에세이 클럽

임수진(교공 02)

임수진 지음/엑스북스

『밤호수』는 저자의 블로그 닉네임으로, 모윤숙 시인의 『밤호수』라는 시의 제목에서 따왔다. 현재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15년째 생활 중인 저자는 온라인 에세이 쓰기 수업 '밤호수의 에세이 클럽'을 4년째 운영해 오고 있다. 시치를 활용해 마치 '하루를 두 번 사는 듯'한 독특한 방식으로 한국과 긴밀히 연결되어 온 것이다. 매 가수마다 10명 안팎의 참가자들이 서로 글을 쓰고 침묵을 주고받는 에세이 클럽은 현재 9기까지 진행되었으며, 모집 공고가 나가는 당일에 바로 마감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동안의 참가자들 모두는 에세이 쓰기



커뮤니티를 만들어 글쓰기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고 있다.

클래식의 심장, 유럽을 걷다

이인현(피아노 09)

이인현 지음/북오션

클래식은 지루하고 어렵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글을 쓰는 피아니스트 이인현 동창이 『클래식의 심장, 유럽을 걷다』를 출간하였다. 전작 『클래식 클래스』 이후 4년 만에 선보이는 이번 책은 클래식의 본고장인 유럽 5개국(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을 직접 발로 뛰며 담아낸 생생한 현장감을 자랑한다. 책은 각 나라를 대표하는 클래식 거장들의 흥미진진한 삶의 이야기, 반드시 들어봐야 할 명곡 해설, 그리고 유럽의 다채로운 음악 축제 경험담까지 풍성하게 담았다.



강하고 아름다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김슬기(커미부 15)

김슬기 지음/클레이하우스

소설가 김슬기 동창이 장편소설 『강하고 아름다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를 출간했다. 지난해 제12회 브런치북 소설 부문 대상작인 이 작품은 삶에 너무 시달려 지쳐 누워 죽을 순간만 기다리던, 별명이 호구인 20대 여성 '강하고'를 강하고 힘센 할머니들이 구해서 구절초리로 들어오면서 시작된다. 세상과 거의 단절된 이상한 마을 구절초리에는 신비한 할머니들이 산다. 매력 넘치는 할머니들과 강하고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힘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게 된다. 김슬기 동창은 2024년 《국제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이 당선되며 소설가로 등단했다.



국내 최초 VIP 상류층 결혼정보회사



에 스 노 블

아무나 진행하지 않고,
함부로 만남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전직 두 대통령 집안의 성혼을 이루어 낸
26년 전통의 자부심으로
집안까지 생각하는 당신의 성혼을 책임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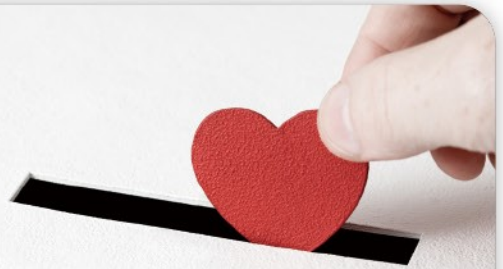


대한민국 최초 상류층 결혼정보회사

S Noble

이화여대 동창 및 자녀 분들을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02-3445-4777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81길 50, 2층 www.snoble.com

이화 사랑의 힘, 연회비와 평생회비 납부로 보여 주세요



26만 이화 동창 여러분, 동창들의 따뜻한 격려와 후원에 힘입어 총동창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모교 발전을 돕고, 이화 동창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창들께서 보내 주신 연회비와 평생회비는 장학 사업, 회보 제작, 모교 발전 기부금 등으로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화에서 뜨거운 젊은 시절을 보냈고, 평생 버팀목이 될 교육을 이화에서 받았습니다. 이화가 우리를 만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이화에 보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화 동창 여러분! 회비 납부를 통해 26만 이화 동창의 저력과 모교 사랑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총동창회는 이화 동창의 따뜻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황규호

동창들이 총동창회를 후원하는 방법은

연회비와 평생회비 납부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화동창 연회비’는 《이화동창》에 동봉한 지로용지나 총동창회 계좌를 통해 해마다 한 번씩 납부하면 됩니다.

‘이화동창 평생회비’는 평생 한 번만 납부하는 회비입니다.

해마다 ‘이화동창 연회비’를 납부하기 위해

지로용지를 찾아 해매는 불편이나,

은행에 이체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이화동창 평생회비’를 납부하면 연회비는 면제됩니다.

■ 이화동창 평생회비 금액과 납부 방법

30만 원~2025년 기준 만 60세 이상(1988년 이전 졸업 동창)

50만 원~2025년 기준 만 60세 미만(1989년 이후 졸업 동창)

평생 한 번 납부, 평생회비 납부자는 연회비 면제

■ 이화동창 연회비 금액과 납부 방법

3만원~1년에 한 번 납부

■ 납부 방법

지로 입금 : 《이화동창》에 동봉한 지로용지를 통해 납부

계좌 이체 : 신한은행 100-009-592614

(예금주:이명경 이대총동창회)

※ 송금시 성명, 학과, 졸업연도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김이화영문80)

■ 문의

총동창회 사무국 전화: 02-3277-3386~7

E-mail : ewhaalum@ewha.ac.kr